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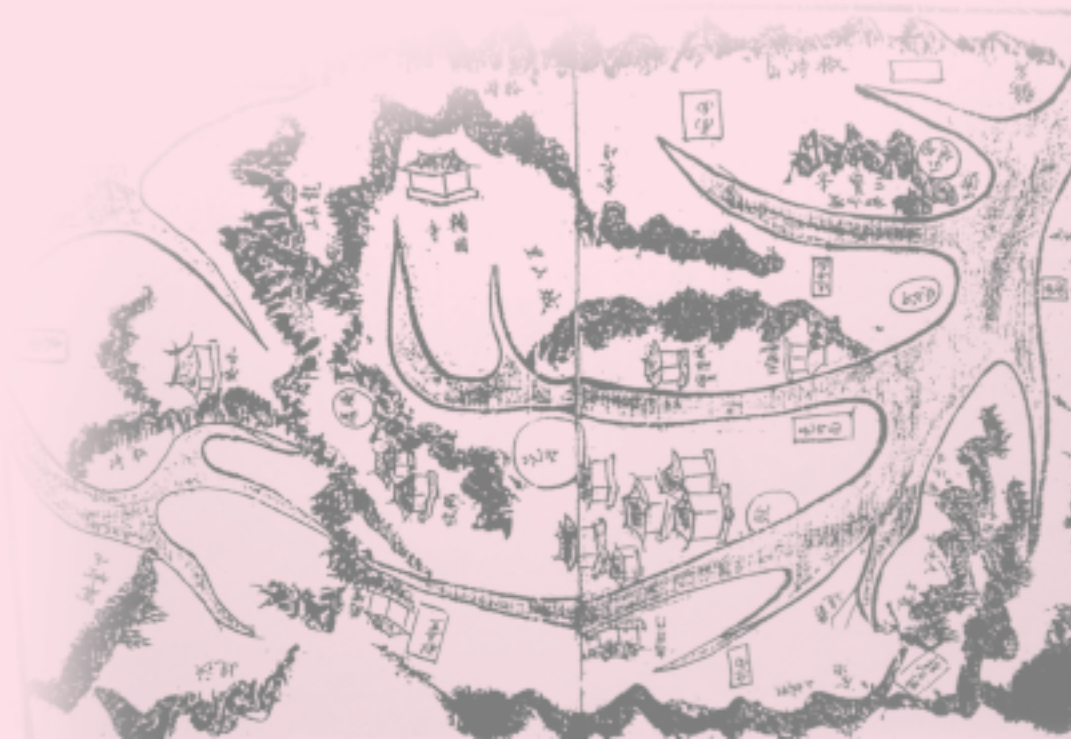


# 총론

제1장 증평군의 연혁

제2장 자연환경

제3장 인문환경





## 제장 증평군의 연혁

차용걸 집필

### 제1절 연 혁

### 제1절

증평군 지역의 선사시대 명칭은 알 수가 없다. 역사시기에 들어서도 정확한 땅 이름이 어찌 불렸는지 알 수 없으나, 서기 3세기 중엽쯤 우리나라의 중서부 지역이 마한 연맹체로 존속된 상황을 기록한 중국문헌에 54개의 작은 국(國) 이름이 있다. 이들 가운데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은 매우 적고, 증평군 지역에 나라가 존재했는지의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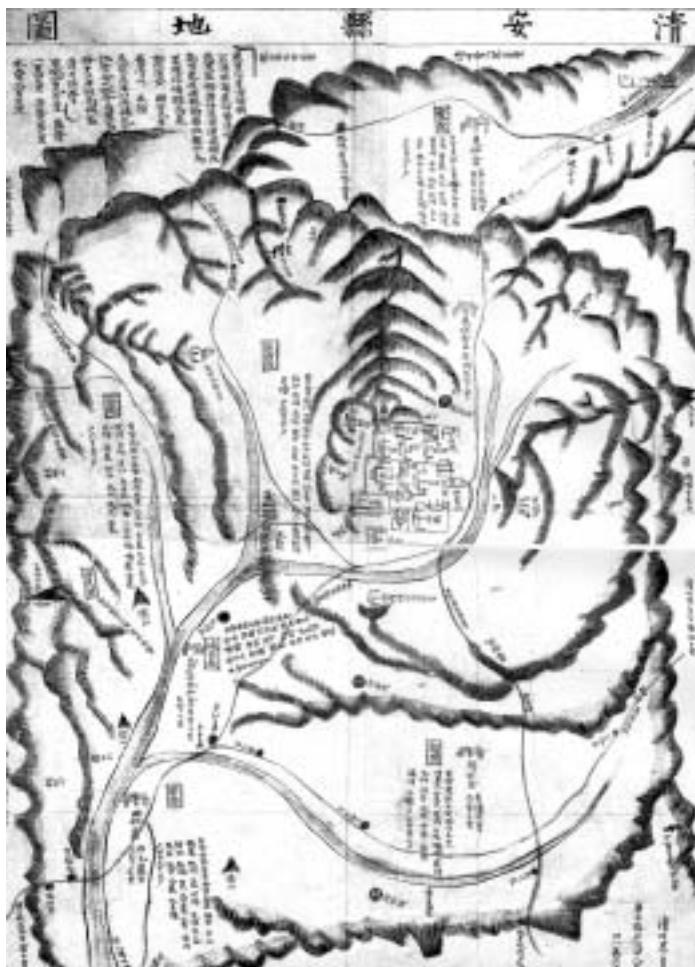
그러나 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에 있었던 마한의 나라들 가운데 백제국(百濟國)이 지금의 서울 근처에 있었으므로, 증평군 지역도 당시 마한(馬韓)의 연맹체 전체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고 여겨진다.<sup>2)</sup>

4세기에 이르러 마한의 동북 지역에 있던 백제국이 백제(百濟) 왕국으로 성장하여 세력이 커지자 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이 백제국의 영역이 됐는데, 이때 증평군 지역도 백제의 영역에 속했다고 믿고 있다. 이 시기의 저명한 유적은 이성산성(尼城山城, 혹은 柵城山城)인데 흙으로 쌓은 산성에서 백제 시기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을 함락시키자 백제는 웅진(熊津, 지금의 公州)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 때 고구려의 세력은 남쪽으로 금강 북쪽까지 진출했으며, 오늘날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남성골에서 고구려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므로, 그 동북쪽의 미호천 유역이 고구려 세력에 의하여 점령됐다고 믿어지고 있다. 역사상 최초로 증평군 지역은 도서(道西), 혹은 도개(都蓋), 도살성(道薩城)으로 불려진 것으로 기록에 보이는데, 이러한 이름이 한동안 기록에 보이는 것은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1) 『三國志』「魏書」의 東夷 韓 및 『後漢書』「列傳」東夷 韓.

2) 삼한(三韓)에 대한 위의 기록에서는 마한이 서쪽에 있고, 辰韓이 동쪽, 弁韓(혹은 弁辰)이 진한의 서쪽이며, 여기서 바다를 건너 왜(倭)의 대마국이 있다고 하므로,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을 마한으로, 낙동강 동쪽 지역의 소백산맥 남쪽 지역을 辰韓으로, 낙동강 하류와 중류 일부 및 낙동강 서쪽, 지리산이남 지역을 변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3) 『三國史記』 권35, 雜誌 4, 地理 2, 漢州 黑壤郡.

4)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28년 春正月에는 達己로 나온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譯註三國史記』 2 번역편, 475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한국인물대사전』에서는 591년에 達己(達己)라 하여 생몰년 미상. 백제 성왕 때의 장군. 530년(성왕 28) 1만명의 군사로 고구려 도살성을 빼앗았다고 하였다.

있기 때문이다.

550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3월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을 빼앗았다. 이러한 싸움으로 두 나라가 지친 틈에 신라 진흥왕(眞興王)은 이찬(伊漣) 이사부(異斯夫, 昔宗이라고도 함)를 시켜 두 성을 빼앗아 성을 증축(增築)하고 군사 1천 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신라의 영토가 됐다. 도살성에는 최소 500명의 신라 중앙 정예군이 머물며 지키는 요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웃한 진천 지역이 신라의 영토가 될 당시 만노군(萬弩郡)이라 불렸으므로, 그에 소속됐고, 경덕왕 16년(757) 이후 흑양군(黑壤郡, 혹은 黃壤郡)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군현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두 고을의 이름도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지리지의 기록인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신라 한주(漢州)에 소속된 흑양군(黑壤郡)은 본래 고구려 금물노군(今勿奴郡)이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현(縣)으로 도서현(都西縣)은 본디 고구려 도서현(道西縣)

이던 것을 신라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며, 고려시대의 도안현(道安縣)이라고 하였다.<sup>3)</sup> 따라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과 그 주변을 점령했던 시기에 미호천 상류, 오늘날의 증평군 지역은 고구려의 도서현이 존재했음을 기록하고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시기의 이름과 영역의 변화는 삼국 사이의 영토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때의 일이었으니, 대략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에 소속됐다가 백제 개로왕(盖廬王) 21년(A.D 475) 9월 이후 고구려에 소속되었고, 고구려 양원왕(陽原王) 6년(A.D 550) 1월까지 고구려에 소속된 도살성을 백제 성왕(聖王) 28년(A.D 550) 1월 장군 달기(達己)를 보내어 군사 1만 명으로 공격하게 하여 고구려로부터 도살성을 빼앗았다.<sup>4)</sup> 그러나 그 해 3월에 신라가 빼앗은 이후 기록 상으로는 줄곧 신라의 영토가 됐다.

처음 백제점령 시기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구려의 도서(道西)는 이후 도살성(道薩城)으로 불리고, 통일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A.D 757)에 이름이 도서현(都西縣)으로 되어 흑양군(진천의 옛 이름)에 소속됐다. 이후 후삼국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이름이 바뀌어 고려시대 초기에 진천군 소속의 도



안(道安, 都西에서 명칭이 변화되어)이란 고을과 청주에 소속된 청당(靑塘, 淸塘), 혹은 청연(靑淵, 淸淵)이라 불린 두 고을이 있었다.

도안현은 고려 현종(顯宗) 9년(A.D 1018)에 청주목 소속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일 청안에 감무(監務)가 있으면서 도안을 겸임하도록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삼국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호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시기 문헌 기록에는 청(淸)과 청(靑)을 혼용하고 있다.<sup>5)</sup>

고려 이후로는 본관을 가진 성씨가 나타나는데, 청안과 도안이 서로 다른 성씨가 많다. 청안이 도안을 겸임했을 경우 토착 이족(吏族)이 다스리는 도안은 중앙에서 감무가 파견된 청안현 감무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두 고을 이외에도 완곡(蕪谷), 염곡(念谷), 곡은곡(谷銀谷), 유통(游筒)이란 이름을 가진 소(所)와 정안(靜安)이란 이름의 부곡(部曲)이 있어서 일반적인 농촌이 아닌 특별한 행정 구역으로 되어 있었다.<sup>6)</sup>

조선왕조 태종 5년(A.D 1405)에 도안과 청당현은 고을의 주민 숫자가 적고 땅도 좁다는 이유로 합쳐서 청안현(淸安縣)이라 했다. 청안이란 이름은 청당현의 첫 글자와 도안현의 둘째 글자를 떼어 합쳐 만든 이름이다. 이 이름은 조선왕조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됐다.

태종 13년(A.D 1413)에 다른 고을들과 같이 수령의 이름을 감무에서 현감으로 고쳤다.<sup>7)</sup>

선조(宣祖) 25년(A.D 1592) 4월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음성(陰城)이 고을을 이루지 못하고 현을 폐지하자, 이웃한 청안현에 음성이 소속됐다. 광해군(光海君) 10년(A.D 1618)에 이르러 음성 사람들의 간곡한 요구와 충청감사 남

5) 『高麗史』권56, 志 10, 地理 1, 淸州牧에서는 靑塘으로, 『世宗實錄』권149, 地理 志 忠淸道에서도 靑塘으로 하였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권16 淸安縣 建置沿革에서는 淸塘(一名 淸淵)으로 표기하였고, 郡名에서는 靑塘, 淸淵으로 되어 있으며, 姓氏에서는 靑塘으로 표기하였다. 淸安과 淸安 뿐만 아니라 淸州와 淸州, 淸川과 淸川도 혼용하여 쓴 경우가 많다.

6) 부곡과 소는 종래 천민집단이라 알려졌으나, 특수한 행정 단위로 파악된다. 소는 특수한 생산품과 광공업 지역의 집락으로 오늘날의 지방 공업단지의 성격을 가진 곳이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일반 촌락과 같이 面里로 개편되었다.

7) 『大東地志』권6 淸安縣의 建置沿革은 다른 지리지와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 부기한다. 즉, 당초부터 청안과 도안은 新羅의 땅이라 하였고, 청안에 대해서는 신라 때의 邑號는 失傳되었으나, 경덕왕 16년에 淸淵으로 고치고 괴양군의 영현이 되었으며, 고려 태조 23년에 淸塘이라 이름을 고치고, 현종 9년에 청주로 소속된 후 감무가 도안을 겸직하였으며, 태종 5년 두 고을을 합쳐 청안이라 하고, 태종 13년 현감으로 고쳤다. 선조 25년 음성이 없어지면서 겸치하고, 광해군 10년에 음성을 분리하였다. 도안도 본래 신라 땅으로 기록하고, 신라의 도안, 혹은 도개라 하던 것을 경덕왕 16년 都西로 고치고, 흑양군 영현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도안으로 고쳐지고, 현종 9년 청주에 소속되고 조선 태조 5년에 청당현에 합쳐졌다고 하였다.

구만(南九萬)의 요청으로 음성현이 분리되어 다시 설치됐다.

고종(高宗) 32년(A.D 1895)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자 충주부에 소속됐다가 건양(建陽) 원년(A.D 1896) 8월 4일 칙령(勅令) 제 36호에 의해 전국을 13도(23부에서 13도로 나누고, 7부 1목 331군이 됨)로 하는 지방제도 개편으로 충청북도가 설치되고 도청을 충주에 두었다. 이 때 4등 군으로 청안군이 설치됐다.

광무(光武) 10년(A.D 1906) 9월 24일 칙령 제 49호로 지방구역이 정리됐는데, 청안군은 6개의 면으로 구성됐다. 10월 1일 충청북도 경무서 청주분서의 청안분파소, 10월 27일 관세관은 충주세무감 충주 세무관 관할구역이 됐다.

융희(隆熙) 2년(A.D 1908) 4월 1일 경부선 철도의 조치원역이 개청되고, 6월 5일 충청북도 도청이 청주로 옮겨져 18군 199면을 관할케 됨에 따라 일부 충주에서 관할하던 재판, 관세 등의 사무가 청주로 집중되어 청안군도 청주와 보다 밀접하게 됐다.

1911년 11월 3일 청안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근대적인 초등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sup>8)</sup>

1914년 4월 1일 전국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청안군은 괴산군에 합병됐으며, 도안면(道安面) 7개리와 증평면(曾坪面) 11개리, 청당면(淸塘面) 11개리를 두었다가 1917년에 청당면은 청안군의 옛 이름을 따라 청안면(淸安面)으로 고쳤다.

1922년 5월 청주~청안(증평)간 23.9km의 충북선 철도공사가 착공되어 1923년 5월 1일 청주~청안(증평)간 충북선 철도가 개통됐다. 이 철도의 개설은 증평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당시 조선중앙철도회사가 9월 1일 조선철도주식회사로 합병되고, 후일 1946년 5월 1일 철도청으로 이관됐다. 이를 계기로 충주변영회를 중심으로 충북선 철도 속성운동이 전



1940년대 증평역 전경

개되고, 1924년 4월 29일 증평시장의 일반상업 시가발전 축하식이 5일간 거행됐는데, 이는 충북선 청안역이 생긴지 만 1주년 기념식을 이용한 행사였다.

1925년 4월 20일 도안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됐다.<sup>9)</sup> 1930년 4월 19일 증평공립보통학교가 개교됐다.<sup>10)</sup> 1939년 7월 30일 증평공립심상소학교 부설 죽리간이학교가 설립됐다.<sup>11)</sup>

1949년 8월 13일 법령 제 156호에 의거 증평면이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증평읍(曾坪邑)으로 승격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 조례 제 1864호에 의거하여 증평지역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종래 괴산군 증평읍과 도안면 관할 구역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승격 설치했다. 증평출장소 아래로는 증평읍

8) 이후 1974년 3월 1일 동원 초등학교를 병합하고, 1996년 3월 청안초등학교로 이름이 변경 되었다.

9) 이 학교는 1949년 5월 1일 연촌 분교를 설립하였다가 1985년 3월 1일 연촌분교는 폐지되고, 1996년 도안초등학교가 되었다.

10) 이 학교는 1939년 4월 1일 부설로 죽리 간이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59년 4월 1일 삼보국민학교로 독립되고, 1996년 3월 1일 증평초등학교로 되었다.

11) 1943년 죽리국민학교로 승격되고, 1966년 4월 1

지역을 증천지소와 장평지소로 분리하고, 도안면을 도안지소로 개칭하여 3개 지소를 뒀다.

2002년 1월 2일 괴산군 리·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충청북도 조례 제 1707호)에 의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개칭 이후 잘못된 행정구역으로 초래된 지소불균형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날로 발전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 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3년 8월 30일자로 증평군이 설치됐다.

- 증평읍 : 증평리 · 신동리 · 창동리 · 내성리 · 초중리 · 연탄리 · 덕상리 · 남차리 · 울리 · 죽리 · 남하리 · 교동리 · 증동리 · 대동리 · 장동리 · 증천리 · 송산리 · 미암리 · 사곡리 · 용강리 (20개리)
- 도안면 : 화성리 · 노암리 · 연촌리 · 송정리 · 광덕리 · 석곡리 · 도당리 (7개리)

일 울리분교장이 설립되어 1972년 3월 1일 울리국민학교로 되었으나, 1991년 3월 1일 죽리초등학교의 울리분교장은 폐지되었다.

## 제 2절 읍 · 면의 연혁

## 제2절

### 1. 증평읍

증평 지역의 연혁으로써 조선시대 이전은 위의 연혁과 같다.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와 『청안현읍지』에는 당시의 청안현 소속 면(面)으로 서면(西面)이 청안 관아에서 15리(里)부터 30리까지, 근서면(近西面)은 7리부터 15리까지로 돼 있다.

증평읍은 조선시대 충청도 청안현의 관할지역으로, 청안현의 소재지였던 괴산군 청안면의 서쪽으로 가까운 지역을 근서면(近西面), 조금 더 떨어진 지역을 서면이라 했던 곳에 있었던 27개리를 근간으로 했다.

청안현은 개국(開國) 504년(A.D 1894) 조선 왕조의 종래 지방제도에서 도(8道)의 구역이 너무 넓고 관할 고을이 많기 때문에 도를 나누



증평읍 법정리 구역표시

어 지방제도를 23부제도로 바꾸었으나, 다시 각 부마다 인원수가 늘어나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폐단을 이유로 건양(建陽) 원년(A.D 1896) 8월 4일 칙령 제 36호에 의하여 13도로 개정하면서 충청북도(관찰부를 충주에 둠) 청안군에 속하게 됐다.

1910년 면의 행정단위가 법정 지위를 가짐에 따라 당초 근서면 소속의 27개리를 관할했다. 청안군 근서면에는 시화(時化)·단암(丹巖)·선원(仙源)·미륵(彌勒)·평사(平沙)·명암(鳴巖)·송티(松峙)·송오(松五)·안자산(安子山)·사곡(沙谷)·연천(連川)·연신(連新)·탑선(塔仙)·금곡(金谷)·방곡(芳谷)·반탄(潘灘)·사청(射廳)·궁전(弓田)·내룡(內龍)·증천(曾川)·외룡(外龍)·석현(石峴)·곡강(曲江)·장평(莊坪)·삼성(三省)·안합(安合)·내상(內上) 등의 자연마을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시화는 조선시대의 역(驛)이 있었던 마을이었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폐합이 이루어질 때 청안군에 소속됐던 전체가 괴산군으로 합쳐지게 되자 청안군 남면의 포천(浦川)·금리(金里)·염곡(濂谷)·탑동(塔洞)·금반(金盤)·둔덕(屯德)·서동(書洞)·모평(牟坪)·대수(大水)·중리(中里)·비학(飛鶴)·원평(院坪)·장봉(獐峯)·정복(正福)·덕령(德令)·구상(九祥)·연정(淵亭)·작동(鵲洞)·탄티(炭峙)·동점(銅店)·덕평(德坪)·장천(長川)·삼기(三岐)·율리(栗里)·외봉천(外奉天)·내봉천(內奉天)의 26개리와 청안군 북면의 시양(柴陽)·도안(道安)의 2개리, 청안군 읍내면의 회룡리(回龍里)와 청주군 산외2면의 초중(楚中)·금대(琴臺)리의 일부와 월경(越境)·청유(淸油) 2개리를 병합하여 증천(曾川)과 장평(莊坪)의 두 이름에서 하나씩의 글자를 떼어 붙여 증평면이라 이름하여 괴산군 증평면이 됐다.

이 때의 법정리는 11개리로 증평리(曾坪里)·미암리(彌巖里)·송산리(松山里)·연탄리(連灘里)·사곡리(射谷里)·용강리(龍江里)·남하리(南下里)·죽리(竹里)·덕상리(德祥里)·남차리(南次里)·율리(栗里)였다.

1949년 8월 13일 증평면은 인구가 증가되어 증평읍으로 승격했다.

1966년 1월 1일 증평리에서 교동리·중동리·대동리를 나누어 법정리로 함에 따라 당초 11개리에서 3개리가 늘어나 14개리로 구성됐다.

1973년 7월 1일 청원군 북이면 초중리를 증평읍에 편입하여 법정리가 15개리로 됐다.

2002년 1월 2일 증평리의 인구증가로 신동리·창동리·내성리·장동리·증천리를 법정리로 분리함에 따라 20개의 법정리를 관할하게 됐다.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증평군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됐다.



## 2. 도안면

조선시대 이전의 연혁은 증평군의 연혁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청안현에 딸린 북면의 지역으로, 청안군 북면이 1910년 33개리를 관할했는데 다음과 같다.

점촌(店村) · 연티(硯峙) · 노상(老上) · 노하(老下) · 백암(白巖) · 신곡(新谷) · 대지곡(大支谷) · 칠송(七松) · 입장(立長) · 소강정(小江亭) · 월강(月江) · 가정(柯亭) · 전당(錢塘) · 비석(碑石) · 구계(九溪) · 천광(天光) · 덕암(德巖) · 둔산(屯山) · 지곡(池谷) · 석화(石花) · 광암(光巖) · 백곡(栢谷) · 진암(鎭巖) · 성도(城都) · 구화(九花) · 상작(上作) · 하작(下作) · 행화정(杏花亭) · 칠곡(七谷) · 명암(鳴巖) · 금당(金塘) · 도암(道巖) · 은행정(銀杏亭)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괴산군으로 소속될 때 서면의 진암리(鎭巖里) 일부와 음성군 원서면(遠西面)의 눌문리(訥文里) 일부를 병합하여 화성리(花城里) · 도당리(道塘里) · 석곡리(石谷里) · 광덕리(光德里) · 송정리(松亭里) · 노암리(老巖里) · 연촌리(硯村里)의 7개리로 개편하면서 옛 도안현의 구역이라 하여 면의 이름을 도안면이라 고쳤다.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이 설치됨에 따라 증평군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됐다.



도안면 법정리 구역표시

## 제2장 자연환경

한주성 집필

### 제1절 위치와 면적

#### 제1절

#### 1. 위치

증평군의 수리적 위치는 동쪽 끝이 증평읍 읍리의 동경  $127^{\circ} 40'$ , 북위  $36^{\circ} 43' 35''$ 이고, 서쪽 끝은 증평읍 연탄리의 동경  $127^{\circ} 32' 20''$ , 북위  $36^{\circ} 48' 15''$ , 남쪽 끝은 증평읍 읍리의 동경  $127^{\circ} 39' 05''$ , 북위  $36^{\circ} 41' 55''$ , 북쪽 끝은 도안면 연촌리의 동경  $127^{\circ} 35' 05''$ , 북위  $36^{\circ} 51' 25''$ 으로, 동서간의 거리는 22.0km, 남북간의 거리는 33.77km로 남북으로 긴 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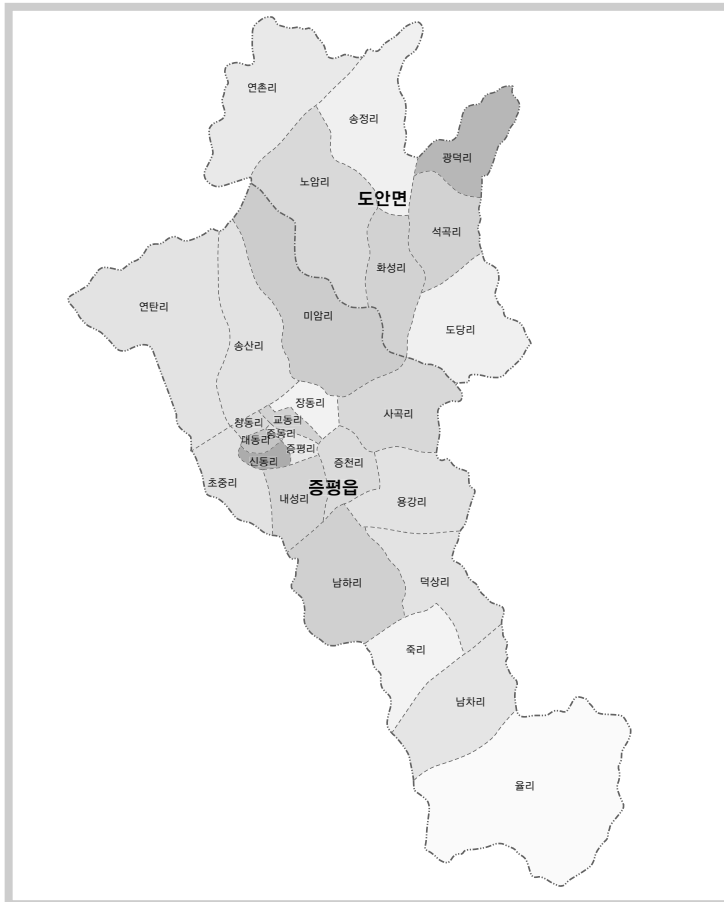
증평군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지로, 동쪽으로는 괴산군 청안·사리면과 서쪽으로는 이성산(尼聖山)을 경계로 청원군 내수읍·북이면과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좌구산(座龜山)을 경계로 청원군 미원면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원남제와 409.5m 고지, 북서쪽으로는 두타산(頭陀山)에 의해 음성군 원남면과 경계를 이룬다.

증평군 각 읍·면간의 거리를 보면 증평읍사무소 소재지에서 도안면사무소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7km이다. 그리고 증평읍에서 충북의 주요 도시간의 거리는 청주시까지는 철도로 25.24km, 도로로 21.9km, 충주시까지는 철도로 46.1km, 도로로 47.9km, 제천시까지는 철도로 85.5km, 도로로 95.0km이다. 그리고 수도인 서울시까지 충북선과 경부선에 의한 철도로는 166.4km이고, 중부고속국도 증평 나들목에서 하남 나들목까지가 95.0km이다.

## 2. 면적과 토지이용

### 1) 면적

● ● 그림 1. 증평군의 읍·면별 행정구역 분포



2003년 증평군의 면적은 81.84km<sup>2</sup>로 이 가운데 증평읍이 67.7%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도안면(32.3%)의 순이다. 다음으로 리의 분포를 보면, 행정리는 92개로 증평읍이 6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안면에 25개가 분포하고 있다. 한편 법정리는 27개가 분포하는데, 이 가운데 증평읍이 2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안면에 7개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반수는 349개로 증평읍이 86.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안면(13.5%)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연마을은 107개가 분포하는데, 증평읍에 68.2%가 분포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안면(31.8%)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1, 표 1).

● ● 표1. 증평군의 행정구역(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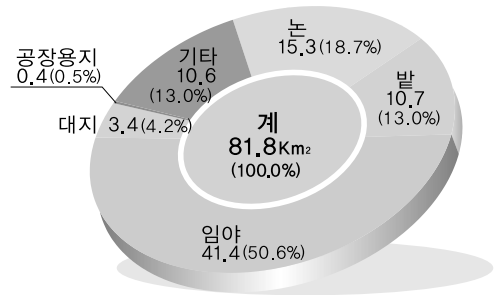
읍·면	행정구역		리		반		자연마을		행정리 당 자연마을 수
	면적(km <sup>2</sup> )	%	행정리	법정리	수	%	수	%	
증평읍	55.41	67.7	67	20	302	86.5	73	68.2	1.09
도안면	26.43	32.3	25	7	47	13.5	34	31.8	1.36
증평군	81.84	100.0	92	27	349	100.0	107	100.0	1.16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38-39쪽.

### 2) 토지이용

다음으로 2003년 토지이용을 보면, 증평군에는 임야의 면적이 전체면적(81.8km<sup>2</sup>)의 50.5%를 차지하여 가장 넓어 반 이상이 임야이고, 그 다음으로 논(18.7%), 밭(13.0%), 대지(4.2%), 구거(3.0%), 도로(3.3%), 하천(2.8%)의 순이

다. 토지이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야면적의 분포를 보면 증평읍이 64.8%로 가장 넓고, 도안면은 35.2%로 대체로 증평읍의 남부지역에 임야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지의 분포를 보면 증평읍이 증평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대지의 경우는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공장용지는 증평읍과 도안면이 각각 53.3%, 46.7%를 차지하는데, 이는 두 읍·면에 각각 농공단지가 하나씩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2).



●● 표 2. 증평군의 토지이용 면적 구성비(2003년)

(단위: km)

읍·면	논		밭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계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증평읍	10.6	66.3	7.6	71.0	26.8	64.7	2.8	82.4	0.2	50.0	7.4	69.8	55.4	67.7
도안면	4.7	30.7	3.1	29.0	14.6	35.3	0.6	17.6	0.2	50.0	3.2	30.2	26.4	32.3
증평군	15.3	100.0	10.7	100.0	41.4	100.0	3.4	100.0	0.4	100.0	10.6	100.0	81.8	100.0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0-41쪽.

## 제2절 지질과 지형

## 제2절

### 1. 지질

증평군의 지질 분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층은 쥐라기(Jurassic)에 형성된 반상화강암(斑狀花崗岩)이고, 그 다음으로 보강천을 따라 분포한 신생대 제4기(第四期)에 형성된 충적층(沖積層)이다. 그리고 두타산을 중심으로 백악기(白堊期)에 형성된 응회암(凝灰岩)이 분포하며, 곳곳에 산성암맥(酸性岩脈)이 분포하고 있다.

증평군의 주요 구성지질은 시대미상의 퇴적기원(堆積起源) 변성암층군(變成岩層群)과 화강암류, 그리고 경상계의 퇴적암류로 크게 나누어지나 그밖에도 선(先)캠브리아기(Preambrian)로 간주하는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과 백악기말의 관입암으로 인정되는 산성 및 염기성 암맥류가 좁은 범위에 부존되어 있다. 퇴적기원 변성암층군은 북동쪽과 남서쪽을 잇는 대각선의 이남 동부에, 그리고 경상계 퇴적암층은 북서쪽 일대에 퇴적기원 변성암층군과 대칭 양상으로 각각 분포한다. 한편, 화강암류는 변성암층군과 경상계 퇴적암층의 중간부분, 즉 중앙부에 NE-SW방향의 대상으로 발달했으며, 그 규모는 크다. 호

●● 그림 2. 증평군의 지질분포



▶ 과학기술부 국립지질연구소, 『한국지질도(1:50,000)』, 1971, 증평도폭.

상편마암은 경상계 지층의 인접부, 그리고 암맥류는 전지질시대를 통해 주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지역의 변성암층군이 주로 함역고회질 석회규산염암(含礫苦灰質石灰硅酸鹽岩), 건운모규질편암(絹雲母硅質片岩) 등으로 구성되는 하위대(下位帶)와 세립석회질천매암(細粒石灰質千枚岩), 결정질석회암 및 사질천매암(砂質千枚岩) 등으로 구성된 중위대, 그리고 석회질점판암(石灰質粘板岩)으로 된 상위대로 구분할 수 있다.

호상편마암은 북쪽에 분포한 경상계 퇴적암층에 부정합으로 피복되고 또한 후기 화강암류에 의해서 관입을 당하여 좁은 범위로 부존하고 있다.

본 지역에 발달한 화강암류는 산출상태에 따라 조립질반상화강암(粗立質斑狀花崗岩), 흑운모화강암 및 화강섬록암(花崗閃綠岩)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지질도의 중앙에 변성암층군 및 화상편마암을 관입하며, 변성암층군의 주향(走向)과 거의 병행하는 방향으로 부존되는데, 이 방향은 한반도 중남부지방의 지구조(地構造) 및 지질분포와 관련성이 큰 NE-SW의 중국방향과 일치한다. 이 화강암은 과거 백악기말에 관입한 신기 화강암으로 일괄 취급해 왔다. 불분명하나 경상계 지층을 관입하여 접촉변질작용을 준 듯한 점은 증평읍 연탄리 부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상계 지층은 호상편마암 사이에 두고 본 화강암과 인접함으로 상호관계는 불분명하다. 암상(岩相)에

있어서도 다소 편상(片狀) 내지 엽리상구조(葉理狀構造)를 보여주는 동시에 비교적 큰 장석반정(長石斑晶)이 배태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서진 내지는 북동진함에 따라 각각 세립질흑운모화강암 또는 화강섬록암으로 점차 변화한다. 이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광역변질을 받은 화강암류로 백악기의 화강암보다는 그 관입시기가 전기(쥐라기)의 것으로 추측되나 확신은 없다.

중생대지층은 녹화색 세일, 자색(赭色)세일 및 응회암으로 구성되며 호상편마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그림 2).

## 2.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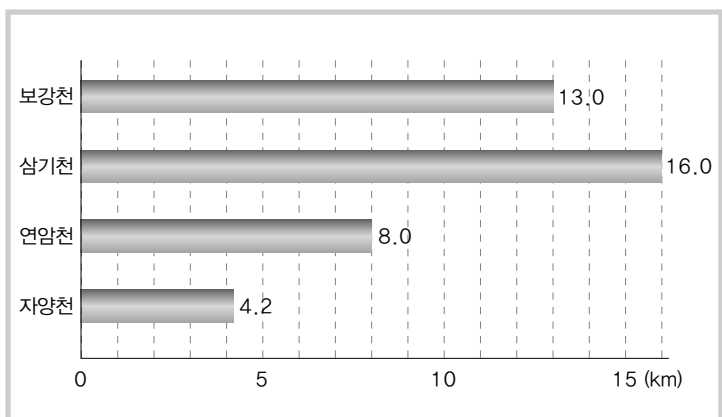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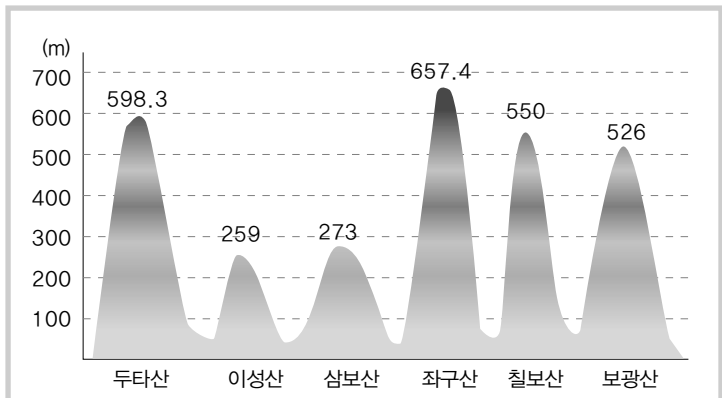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는 증평군은 산지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구성 암석과 구조에 따른 것이다. 즉, 첫째 중생대 경상계 지층이 분포하는 북서부 지역, 둘째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중부지역, 셋째 변성암층군의 지층이 점유하는 동부지역이다.

먼저 북서부 지역은 산 능선이 북동-남서로 연장하는 주능선과 이에 직교하는 방향의 지능선(枝稜線)을 분기시키고 하천의 발달도 주능선과 지능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 지역의 도안면 서쪽 경계에 두타산(598.3m), 475m 고지 등이 북동방향으로 발달하였다. 그래서 지형이 험준하고 기복이 심한 장년기적 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부지역은 증평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삭박작용을 쉽게 받아 노년기적 구릉성 산계를 나타내며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동부지역은 보광산(526m)~595m 고지~칠보산~좌구산(657.4m)~구녀산~488m 고지를 연결하는 주능선은 북동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큰 계곡은 이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한편, 하계망은 북류하는 청안천이 보강천과 증평읍 북쪽에서 합류하여 보강천을 이루며, 남류하는 자양천도 증평읍 중심부 근에서 합류하여 미호천에 유입된다.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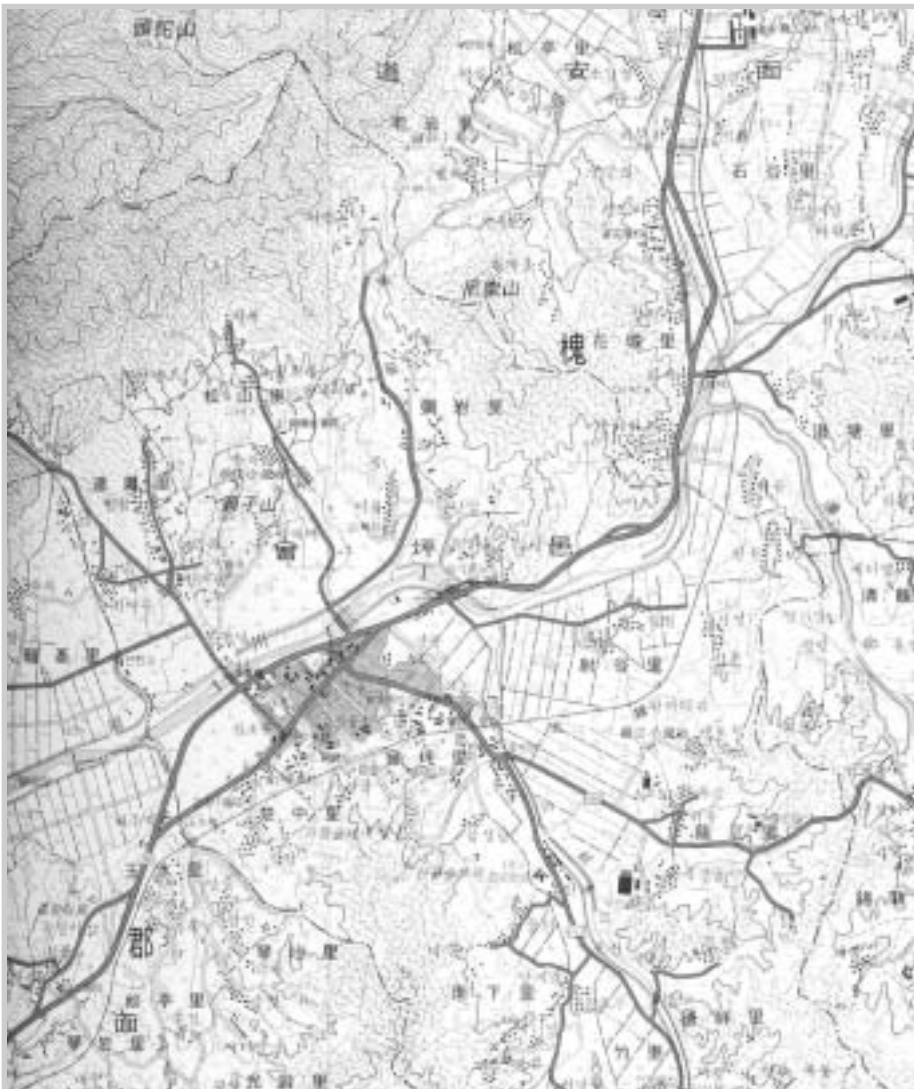


강천은 지방하천으로 증평읍과 도안면의 경계에서 청원군과 진천군의 경계까지 흐르는데, 증평군에서의 길이는 13km이다. 그리고 준용하천(準用河川)으로 보강천 길이는 2.9km, 증평·음성군 경계에서 문암천 합류지점까지의 연암천의 길이는 8.0km, 증평·괴산군 경계에서 보강천 합류지점까지의 문방천은 1.6km, 증평군 울리 경계에서 보강천 합류지점까지의 삼기천은 그 길이가 16km이다.

증평읍은 금강의 지류인 보강천이 읍의 중앙부를 서류하여 군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데, 200m 이하의 일부 구릉지를 제외하면 거의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다. 도안면은 서쪽 경계에 두타산, 이성산(259m)이 솟아 있어 서부와 남부 중앙은 대부분 높은 산지를 이루며, 동부는 보강천의 지류가 망상유로로 흘러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증평군에 분포한 두타산은 진천평야의 넓은 들과 미호천 평야의 동쪽 끝인

●● 그림 3. 증평군의 지형분포(1:50,000)



증평평야를 부감(俯瞰 :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봄)하는 진천과 증평의 경계를 이루며 외국의 지리와 풍속·신화·전설을 기록한 중국 최고의 지리책인 산해경『해외동경편』에 ‘칠년 홍수 치산치수 단군신왕우(七年洪水治山治水檀君臣彭虞)’로 기록되어 있어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단군 성조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오랫동안 장마로 물난리를 겪어 이 곳도 평해로 변하니 주민들은 가장 높은 산으로 모여들어 수난을 피했다고 한다.

그 후 무명인 이 산은 홍수 때 산봉우리가 섬같이 보였다고 하여 머리 두(頭), 험할 타(陀) 자를 따서 두타산이라 부르게 됐고, 또 생명의 도움을 준 산이라 하여 일명 가리도

(加利島)라 부르기도 한다. 당시 배가 넘어 다니던 고개를 ‘배넘어 고개’라 하여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다(그림 3).

## 제3절 기후와 토양 및 식생

### 제3절

#### 1. 기후

##### 1) 일기 일수

2003년 증평군의 일기 일수를 보면 맑은 날은 연중 131일이고, 안개 낀 일수가 170일, 서리가 내린 일수가 89일, 흐린 날은 121일, 비가 온 일수는 99일로 연중 35.9%가 맑은 일수였다. 맑은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은 10월이 17일이고, 그 다음으로 1·12월(각각 16일), 5월(15일)의 순이다. 또 안개는 6·9월에 많이 끼었고, 서리는 겨울철에 많이 내렸다. 그리고 흐린 날은 2·3·6·9·11월에, 강수 일수는 7~9월에 많았다(표 3).

●● 표 3. 증평군의 일기일수(2003년)

구분	맑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1월	16	7	2	26	7	6	-
2월	11	12	4	15	11	1	-
3월	7	16	5	15	17	3	-
4월	14	5	11	3	13	-	-
5월	15	10	6	-	19	-	1
6월	8	13	9	-	20	-	-
7월	4	8	19	-	12	-	3
8월	5	8	18	-	16	-	4
9월	8	12	10	-	21	-	4
10월	17	9	5	6	16	-	1
11월	10	11	8	7	11	1	-
12월	16	10	2	17	7	3	-
계	131	121	99	89	170	14	13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2-43쪽.

##### 2) 기상 개황

2003년 증평군의 기상 개황을 보면, 평균운량은 7~8월 여름에 많고, 10월



에 가장 적었다. 그리고 일조시간은 5월이 7.9시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10월과 4월이 각각 7.6시간, 6.4시간의 순이다. 운량과 강수량과의 관계를 보면 운량이 많은 7~8월에 강수량이 많았다(표 4).

● ● 표 4. 증평균의 기상상황(2003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평균운량 (10%)	4.8	5.8	6.2	5.3	5.1	6.9	8.1	8.0	7.5	4.1	6.0	4.7	6.0
일조시간 (시간)	5.2	5.0	6.0	6.4	7.9	5.5	4.6	4.6	5.2	7.6	4.5	5.6	5.7

■ 증평균, 『통계연보』, 2004,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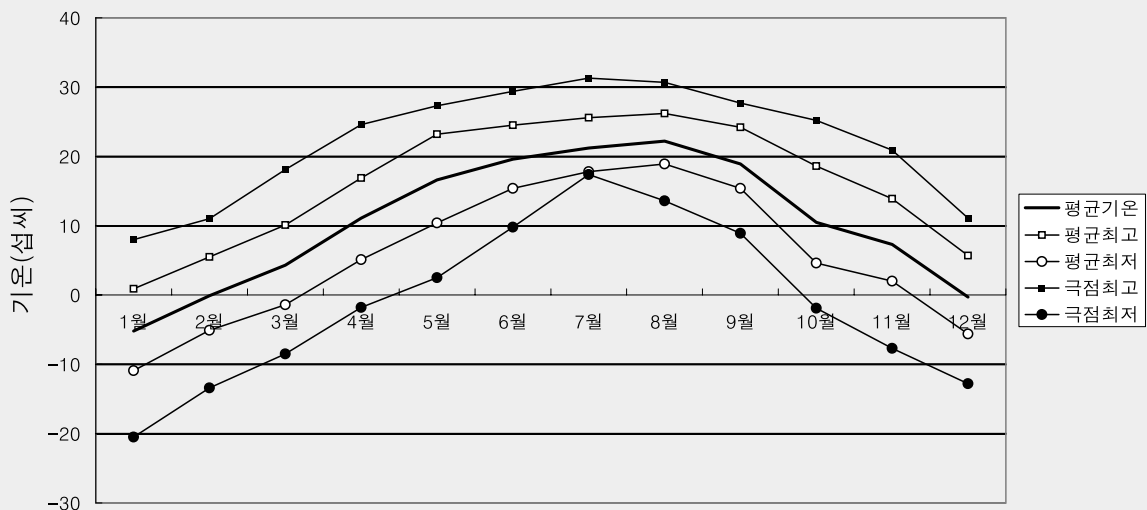
### 3) 기후요소

기후의 주요 요소는 기온과 강수량, 바람인데, 먼저 기온을 평균기온<sup>1)</sup>, 평균 최고·최저기온, 극점최고·최저기온<sup>2)</sup>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평균기온은 10.5℃이고, 평균 최고기온은 8월의 26.2℃이며, 평균 최저기온은 1월의 -10.9℃이다. 그리고 극점 최고기온은 7월의 31.3℃이고, 극점 최저기온은 1월의 -20.5℃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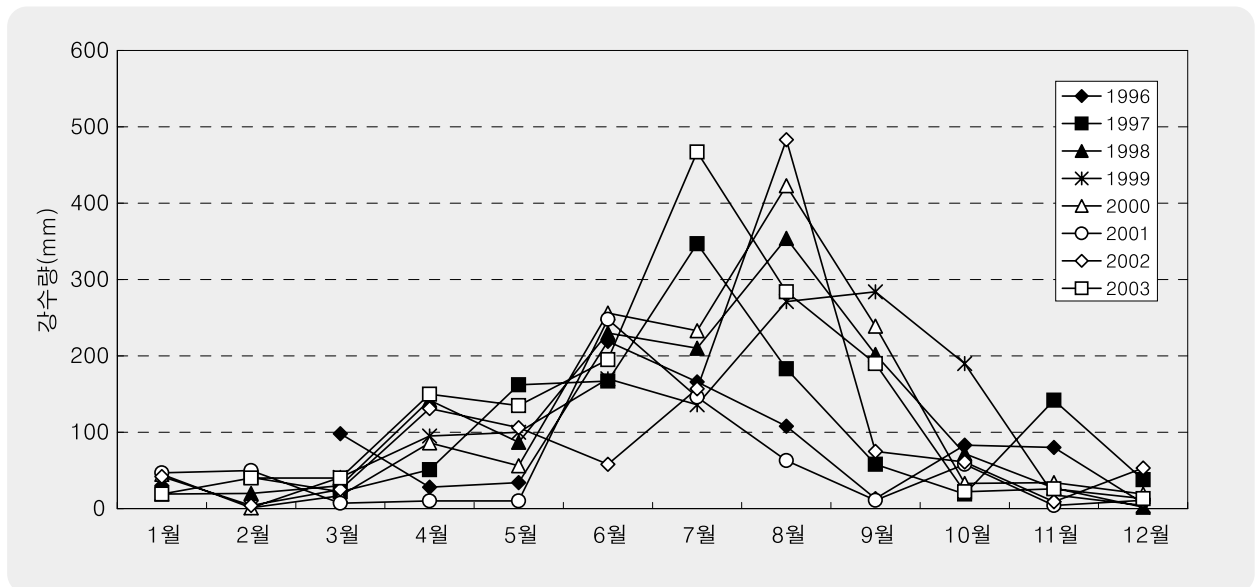
1996~2003년 사이의 증평균 월별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해는 2003년의 1,581mm이고, 그 다음은 2000년의 1,441mm, 1998년의 1,395mm, 1999년의 1,310mm로 2001년에는 665mm로 가장 적었다. 2003년 월별 강수량을 보면, 7월이 연강수량의 29.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12월이 0.8%를 차지하여 가장 적다(그림 5).

■ 증평균, 『통계연보』, 2004, 44쪽.

● ● 그림 4. 증평균의 기온변화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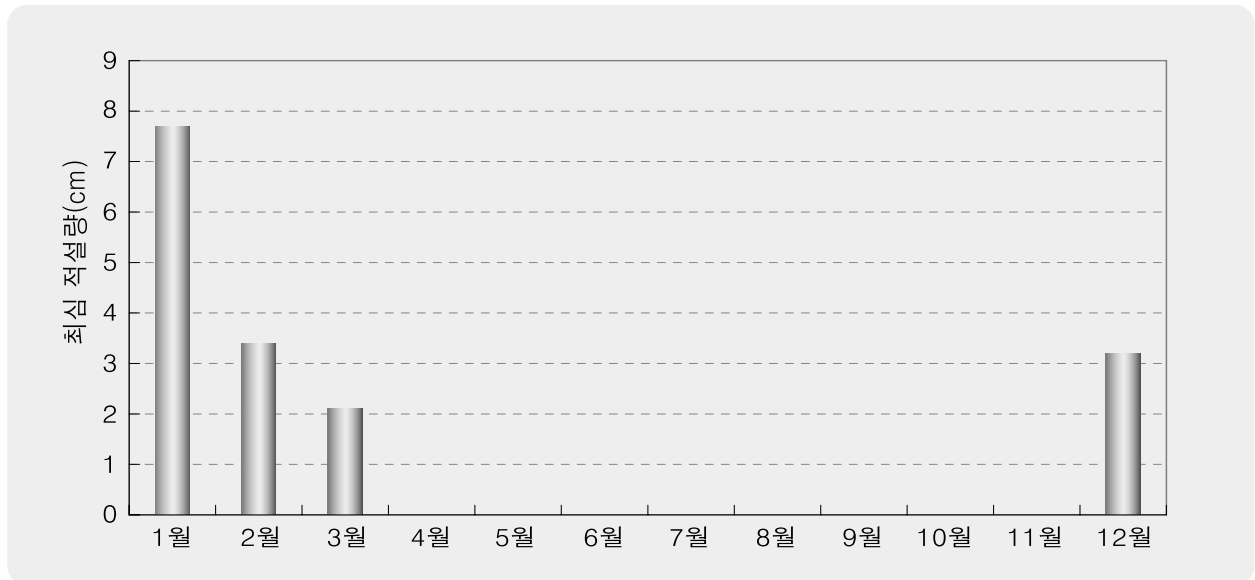
●● 그림 5. 강수량의 월별 분포(2003년)



다음으로 강수현상 중 적설량을 보면, 2003년 최심 신적설량은 1월이 7.7cm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월이 3.4cm, 12월이 3.2cm, 3월이 2.1cm의 순이었다(그림 6).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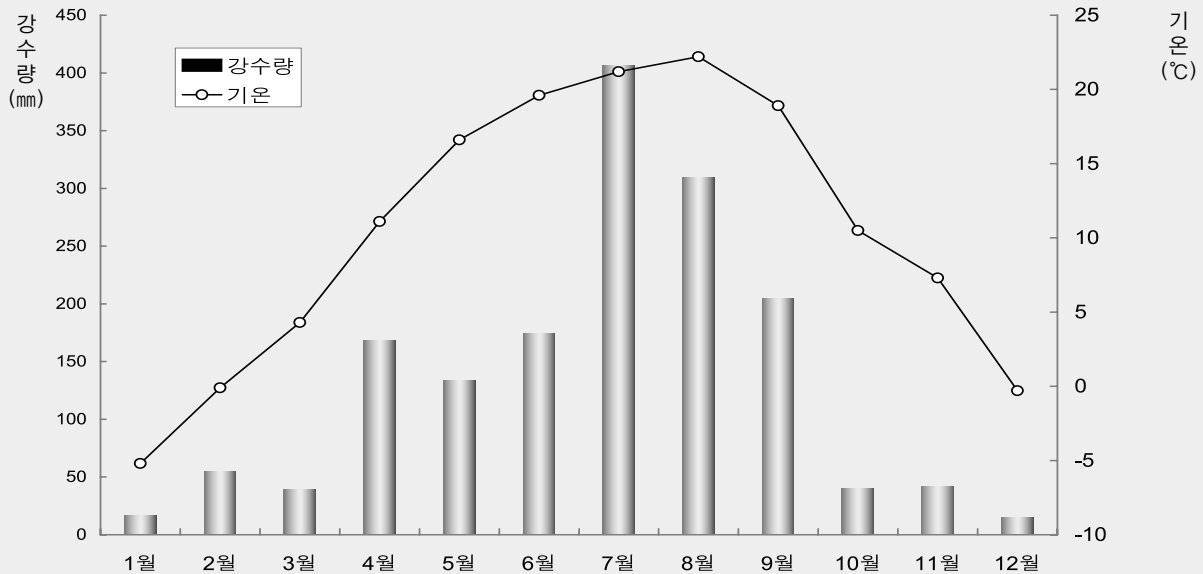
●● 그림 6. 증평균 최심 신적설량(2003년)



다음으로 2003년 증평균의 기온과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 7월에 기온이 가장 높고, 1월에 기온이 가장 낮다. 그리고 강수량은 8월에 가장 많고, 나머지 달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봄이 가을보다 강수량이 많은 것도 특이한 점이다(그림 7).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5쪽.

●● 그림 7. 증평군의 기온과 강수량 분포(2003년)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4쪽.

다음으로 바람을 보면, 2003년 증평군 바람의 평균풍속은 1.2m/s로 1월, 3~4월이 연평균 풍속보다 빨랐다. 그리고 바람의 속도가 가장 약한 달은 8월로 0.9m/s이었다.

최대풍속을 보면, 연평균 최대풍속은 NNW19.5m/s로 8월이 이에 해당되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 11월의 ESE18.2m/s, 9월 SW18.0m/s의 순으로 7월이 ESE9.0m/s로 가장 약했다(표 5).

●● 표 5. 증평군의 평균풍속과 최대풍속(m/s)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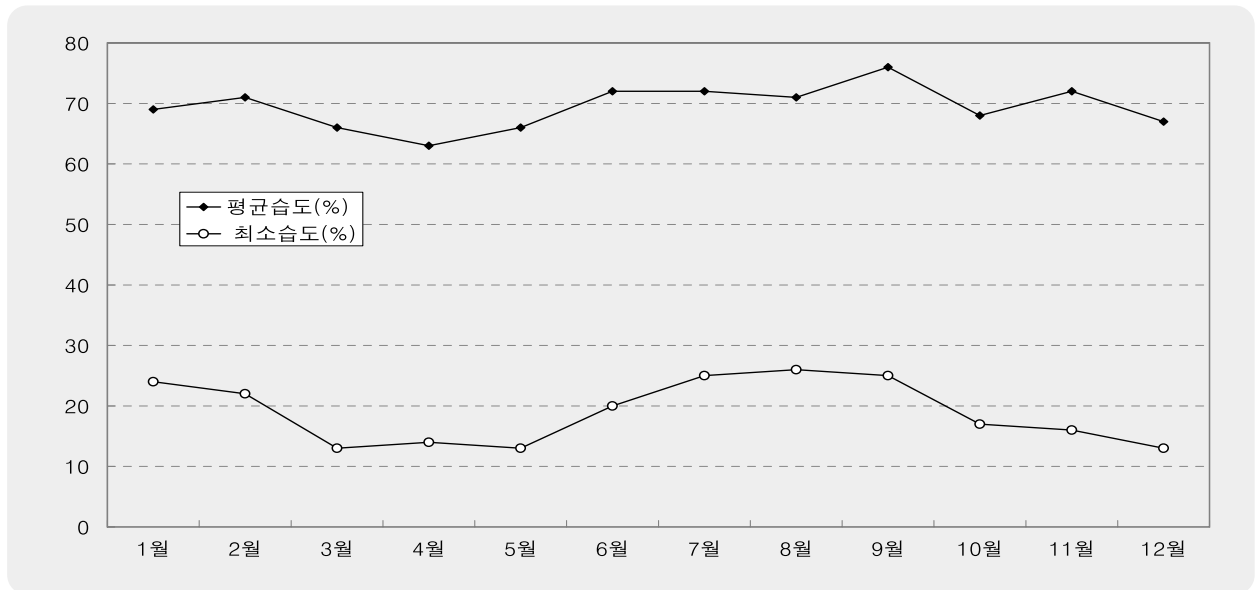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평균풍속	1.3	1.0	1.3	1.6	1.2	1.1	1.2	0.9	1.0	1.2	1.1	1.2	1.2
최대풍속	WSW 14.2	SW 9.6	WSW 14.4	W 14.7	SE 13.8	W 11.2	ESE 9.0	NNW 19.5	SW 18.0	SES 16.6	ESE 18.2	SES 15.9	NNW 19.5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5쪽.

3) 평균습도는 1997년 1월부터 매일 3시,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의 8회 관측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2003년 증평군의 습도를 보면 연 평균습도<sup>3)</sup>는 69%이고, 최소습도는 13%이다. 이를 월별로 보면, 평균습도는 9월이 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11월이 72%, 2월과 8월이 모두 71%이고, 4월이 63%로 가장 낮다. 그리고 최고습도는 8월이 26%로 가장 높고, 3·5·12월이 13%로 가장 낮아 여름에 높고 봄에 낮다(그림 8).

●● 그림 8. 증평군의 월별 습도분포 (2003년)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4쪽.

#### 4) 기상재해

1997~2003년 사이의 증평군 풍수해 피해를 보면, 1997~1999년 사이에는 이재민이 각각 5, 6, 4인이 발생했으며, 2000년과 2002년에는 각각 치수가 15.5ha, 18.0ha이 발생했다. 그리고 피해액은 2001년에는 없었으나 1999년에는 약 2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3년에 약 28,000원이었다. 2002년 증평군의 자연재해는 풍수해로 침수면적은 18ha로 피해액은 약 8,900만원이었다. 보강천에 연해 있는 증평군의 피해액의 규모를 보면, 공공시설이 약 4,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약 3,700만원, 농경지가 약 260만원의 순이다(표 6).

●● 표 6. 증평군의 풍수재해 변화

구분 연도	이재민	침수면적 (ha)	피 해 액 (천 원) (%)				
			건 물	농경지	공공시설	기 타	계
1997	5		769(0.7)		104,896(99.3)		105,665(100.0)
1998	6		50,000(51.7)		43,898(45.4)	2,900(3.0)	96,798(100.0)
1999	4		55,200(22.5)	4,592(1.9)	179,329(73.2)	5,688(2.3)	244,809(100.0)
2000		15.5		2,734(7.7)		32,795(92.3)	35,529(100.0)
2001							-
2002		18.0		2,633(2.9)	49,448(55.2)	37,448(41.8)	89,569(100.0)
2003						28(100.0)	28(100.0)

증평군, 『통계연보』  
2003, 321쪽, 2004, 310-31쪽

## 2. 토양의 분포

증평군에 분포한 토양은 하천 범람지에 분포된 토양으로 Afa(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사양질 내지 사질), Afb(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사양질 내지 사질), Afc(범람지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매우 양호, 사질 내지 사양질), Afd(범람지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매우 양호, 자갈이 있는 사질 내지 자갈이 있는 사양질), 내륙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으로 Apa(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 Apb(적황색토 홍적,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 Apc(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양호, 자갈이 있는 식양질 내지 자갈이 있는 사양질), Apd(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불량, 미사 식양질 내지 식질), Apg(충적토, 배수양호, 자갈이 있는 식양질 내지 자갈이 있는 사양질), 산악 곡간지에 분포된 토양으로 Ana(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불량, 식양질 내지 미사 식양질), Anb(충적토

●● 그림 9. 증평군의 토양 분포



및 회색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약간 불량, 자갈이 있는 사양질), Anc(퇴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사양질 내지 식질), And(흑갈색 퇴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된 토양으로** Raa(적황색토, 저구릉, 홍적 및 산성암, 배수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Rab(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Rac(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Rad(퇴적토 및 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양호, 돌 및 자갈이 있는 식양질 내지 돌 및 자갈이 있는 사양질), Rea(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식양질 내지 사질, 침식), Rla(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석회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Rlb(적황색토 및 퇴적토, 산록, 석회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Rsa(암쇄토 및 적황색토, 저구릉, 퇴적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Rsb(적황색토, 산록, 퇴적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Rva(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Rvb(적황색토, 산록,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Rvc(퇴적토 및 적황색토, 산록,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양호, 자갈이 있는 식양질 내지 자갈이 있는 사양질), Rvd(적황색토, 대지, 현무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Rxa(회색토 및 충적토, 저구릉 곡간, 배수양호 내지 약간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된 토양**으로 Maa(암쇄토 및 적황색토, 구릉, 산성암, 배수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ab(암쇄토, 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ac(암쇄토, 산악,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ja(화산회토, 구릉 및 산악, 화산 분석구, 배수 매우 양호, 돌 및 자갈이 있는 미사 식양질 내지 돌 및 자갈이 있는 미사 사양질), Mla(암쇄토 및 적황색토, 구릉, 석회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사양질 내지 식질), Mlb(암쇄토, 산악, 석회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ma(암쇄토, 구릉, 변성 퇴적암 및 편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mb(암쇄토, 산악, 변성 퇴적암 및 편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sa(암쇄토, 구릉, 퇴적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sb(암쇄토, 산악, 퇴적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ua(산성갈색 산림토 및 암쇄토, 고원, 산성, 중성, 염기성암 및 퇴적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ub(암쇄토 및 산성갈색 산림토, 산악, 산성, 중성, 염기성암 및 퇴적암, 배수 양호 내지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va(암쇄토, 구릉,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vb(암쇄토, 산악,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와 Ro(암석 노출지) 등이 있다(그림 9).

### 3. 식생의 분포

#### 1) 읍·면별 식생 분포

중평군은 활엽수림보다 침엽수림이 월등히 많은 지역이다. 중평군에 분포한 식물군락으로는 중평읍 밤터 중평저수지 부근의 200~300m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상수리나무 군락(群落)이 있는데, 수고(樹高)는 약 13m이고, 식피율(植被率)은 80%이다. 이 군락에는 소나무가 가끔 섞여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식물이 임관층(林冠層)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아교목층(亞喬木層)에는 상수리나무를 비롯하여 떡갈나무, 밤나무, 소나무가 식생을 이루고 있으며, 식피율 30% 정도로 피도(被度)가 낮다. 관목층(灌木層)에는 떡갈나무를 비롯하여 졸참나무, 참싸리, 생강나무, 붉나무 등이 식피율 약 40% 정도로 피복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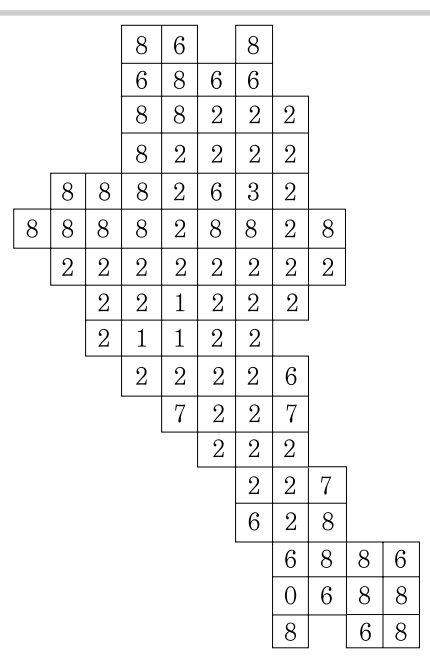


중평군 지역 주요 생물들

고, 초본층(草本層)에는 역시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붉나무, 조록싸리, 기름새, 조팝나무, 산딸기 등이 식피율 40%로 낮은 피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소나무-줄참나무 군락은 중평읍 울리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 소나무와 줄참나무가 임관층을 형성하고 있다. 수고는 10m 정도이고 식피율은 65~70% 내외이다. 아교목층은 수고가 약 7m 밖에 되지 않으나 소나무, 줄참나무, 붉나무, 벚나무, 굴피나무가 식피율 30%이다. 관목층은 줄참나무를 비롯하여 떡갈나무, 참개암나무, 붉나무, 화살나무, 노린재나무, 산초나무, 자귀나무, 청미래덩굴 등의 식물이 식피율 5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초본류는 그늘사초, 꼭두서니, 억새, 양지꽃, 참취, 향유, 맥문동, 산딸기, 까치수영, 제비꽃 등이 나타나고 식피율은 60%이다.

●● 그림 10. 중평군의 녹지자연도 분포



## 2) 자연녹지도

자연녹지도의 등급을 보면 1등급은 시가지 조성지이고, 2등급은 경작지, 과수원, 모포장 등과 같은 녹지식생의 양이 많은 지역이고, 4·5등급은 잔디 군락이나 인공초지, 갈대 및 조릿대 군락의 초원지대이다. 9등급은 자연림, 0등급은 고산 자연초원 등의 지역이고,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의 대상(代償) 식생지구, 그 밖의 등급은 저수지, 하천유역 지구이다. 중평군은 2등급이 48.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8등급의 28.0%, 6등급의 13.4%의 순이다(그림 10, 표 7).

● ● 표 7. 증평군의 자연녹지도

자연 녹지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0등급	총방안 개수
증평읍	3	27	0	0	0	6	3	15	0	1	55
도안면	0	13	1	0	0	5	0	8	0	0	27
계	3	40	1	0	0	11	3	23	0	1	82
%	3.7	48.8	1.2	0.0	0.0	13.4	3.7	28.0	0.0	1.2	100.0

녹지자연도를 근거로 식생 현존량 및 생산량의 관계를 이용하여 총식생 현존량 및 생산량을 산출한 결과 증평군의 평균 녹지자연도 격자수는 증평읍과 도안면이 각각 4.25, 4.56이다. 또 증평읍과 도안면의 식생 현존량은 각각 210,060톤, 113,620톤이고, 생산량은 연간 각각 42,540톤, 23,200톤이다(표 8).

□ 環境廳, 『88自然生態系 全國調査(I-1)』 第3次年度(忠北의 綠地自然度), 1988, 153쪽.

□ 環境廳, 『88自然生態系 全國調査(I-1)』 第3次年度(忠北의 綠地自然度), 1988, 156쪽.

● ● 표 8. 증평군의 식생 생존량 및 생산량

식생 생존량 및 생산량	평균 녹지 자연도 격자수	현존량 (톤)	단위 현존량 (톤/km <sup>2</sup> )	생산량 (톤/년)	단위 생산량 (톤/km <sup>2</sup> /년)	산소 생산량
증평읍	4.25	210,060	3,819.27	42,540	773.45	45,092.4
도안면	4.56	113,620	4,208.15	23,200	860.00	24,613.2

### 3) 보호수

증평군의 보호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증평군에는 도(道)나무로 은행나무와 군(郡)나무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보호수의 특징을 보면, 증평읍과 도안면에 각각 4본씩 분포하고 있다(표 9).



증평읍 용강1리 은행나무



도안면 노암1리 행갈마을 느티나무



도안면 석곡1리 버드나무



●● 표 9. 증평군의 보호수 분포

구분		수령(년)	수고(m)	둘레(m)	본수	면적(m <sup>2</sup> )	소재지
도나무	은행나무	500	20	5.2	1	130	도안면 화성 7리
군나무	느티나무	300	17	4.8	1	120	증평읍 미암1리
	은행나무	400	11	5.2	1	40	증평읍 용강1리
	느티나무	400	9	3.8	1	70	증평읍 용강3리
	느티나무	350	14	3.1	1	70	증평읍 남하3리
	느티나무	350	12	5.9	1	40	도안면 송정리
	버드나무	300	15	5.1	1	40	도안면 석곡1리
	은행나무	450	10	6.0	1	120	도안면 도당713리
읍면나무	느티나무	250	11	5.2	1		남치2리 64번지
	느티나무	250	10	4.8	1		남하리 141
	느티나무	250	11	3.2	1		남하리 333
	느티나무	250	13	3.2	1		노암1리 165
	느티나무	250	10	3.1	1		덕상리 132
	느티나무	290	7	3	1		덕상리 127
	느티나무	200	9	1.8	2		장동 455
	느티나무	250	10	1.3	1		사곡 162
	느티나무	250	12	7.8	1		죽리 296
	느티나무	250	17	1.2	1		덕상리

☐ 忠淸北道教育委員會, 『忠北의 自然(植物篇)』, 1988, 358-362쪽.

## 제3장 인문환경

한주성 집필

### 제1절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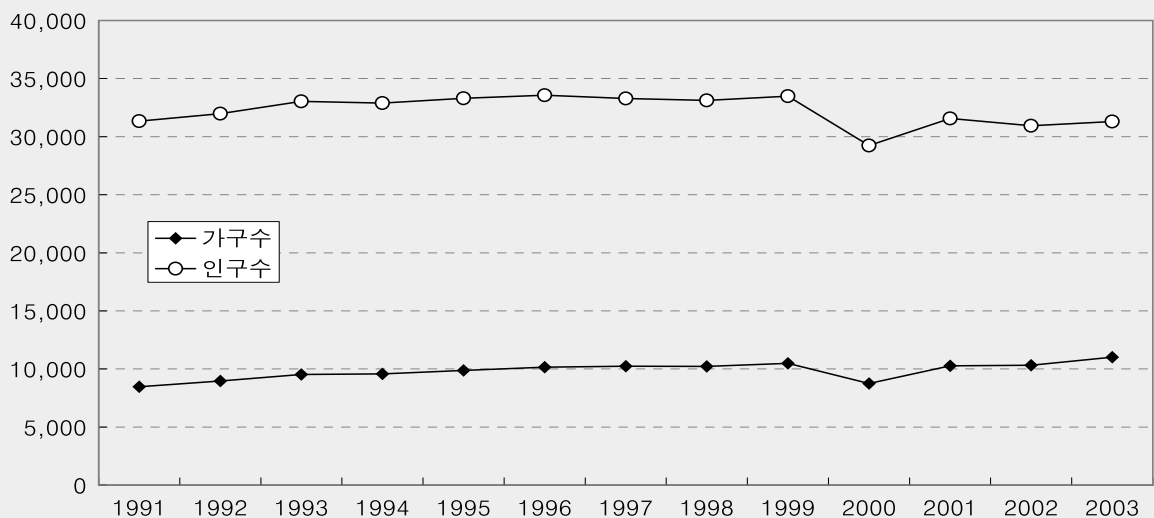
#### 제1절

#### 1. 가구와 인구수의 변화

증평군의 1991년 가구수는 8,460가구이었으나 1996년 1만 가구를 넘어 2003년에는 11,013가구가 되어 12년 동안 2,553가구가 증가해 보통 가구 증가율은 30.2%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나타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인구수는 31,979인에서 31,310인으로 669인이 감소하여 보통 인구증가율은 -2.1%이었고,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로 가구수가 약 12.5배 증가하였다(그림

●● 그림 1. 증평군의 가구수와 인구수의 변화

증평군, 『통계연보』, 2004, 48쪽.



1). 이는 젊은층과 노년층 가구의 분가로 단독가구 등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1991년 중평균의 가구 당 인구수는 3.7인이었으나 2003년에는 2.8인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1%로 중평균이 낮다.

남녀별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위와 같은 기간에 남자는 15,872인에서 15,850인으로 보통 인구증가율이 -0.1%, 여자는 15,467인에서 15,460인으로 -0.1%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각각 약 -0.01%이다.

2000년 중평균의 가구수는 8,743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가구가 99.6%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일반가구였다. 그리고 외국인 가구는 0.3%, 집단시설 가구와 집단가구는 각각 0.1%, 0.0%를 차지하였다. 가구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중평읍은 중평균 전체 가구수의 89.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도안면은 10.6%로 읍·면간의 차이가 크며, 중평읍의 집중도가 강하다(표 1).

●● 표 1. 중평균의 읍·면별 가구수

읍·면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 가구	외국인 가구	총 가구	
					수	%
중평읍	7,781	3	5	23	7,812	89.4
도안면	926			5	931	10.6
계	8,707	3	5	28	8,743	100.0
%	99.6	0.0	0.1	0.3	100.0	

□ 중천지소와 장평지소를 합하여 중평읍으로 하였음.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중청북도)』, 2002, 300-301쪽.

## 2. 인구밀도와 인구 분포

중평균의 인구밀도를 보면, 먼저 통계적 인구밀도는 1991년 382.6인/km<sup>2</sup>이던 것이 2003년에는 383.0인/km<sup>2</sup>이 되어 조금 증가했으며, 읍·면별 인구밀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통계적 인구밀도는 중평읍이 511.9인/km<sup>2</sup>으로 가장 높고, 도안면은 113.1인/km<sup>2</sup>으로 군의 통계적 평균 인구밀도 보다 낮다. 또 경지면적에 의한 경제적 인구밀도는 중평읍이 1,550.7인/km<sup>2</sup>으로 가장 높고, 도안면은 383.1인/km<sup>2</sup>으로 중평읍은 군의 경제적 평균 인구밀도(1,203.1인/km<sup>2</sup>)보다 높다. 그리고 중평균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농업인구의 농업인구밀도는 77.5인/km<sup>2</sup>으로 군 평균보다 높은 중평읍은 78.3인/km<sup>2</sup>이고 도안면은 64.3인/km<sup>2</sup>이다(표 2). 한편 2000년 중평균의 방 당<sup>1)</sup> 인구밀도는 1.03인이다.

1) 사용방수 6개 이상은 6개로 간주하여 산출하였음.

●● 표 2. 읍·면별 인구밀도(2003년)

읍·면	면 적(km <sup>2</sup> )		인 구 수	농업인구 (2000년)	인 구 밀 도 (인/km <sup>2</sup> )		
	행정구역	경지면적			통계적 인구밀도	경제적 인구밀도	농업 인구밀도
증평읍	55.41	18.4	28,532	4,341	511.9	1,550.7	78.3
도안면	26.43	7.8	2,988	1,699	113.1	383.1	64.3
증평균	81.84	26.2	31,520	6,340	383.0	1,203.1	77.5

■ 증평균, 『통계연보』, 2004, 38, 50, 82쪽;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충청북도편)』, 2002, 27쪽.

2003년 증평균의 읍·면별 가구수와 인구수의 분포를 보면, 먼저 총 가구수(11,013가구)의 90.4%가 증평읍에 분포하여 가장 많고 도안면은 9.6%로 읍·면간의 차이가 크다. 다음으로 인구분포를 보면, 가구수와 마찬가지로 증평읍이 총 인구수의 90.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도안면은 9.5%로 인구수도 가구수와 마찬가지로 읍·면간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표 3). 이와 같은 가구수와 인구수의 지역적 분포에서 증평읍은 군청소재지로 중심지 기능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3. 증평균의 읍·면별 가구수와 인구수(2003년)

읍·면	총 가 구		인 구 수			
	수	%	남	여	계	%
증평읍	9,957	90.4	14,401	14,131	28,532	90.5
도안면	1,056	9.6	1,532	1,456	2,988	9.5
증평균	11,013	100.0	15,933	15,587	31,520	100.0

■ 증평균, 『통계연보』, 2004, 50쪽.

### 3. 인구 구성과 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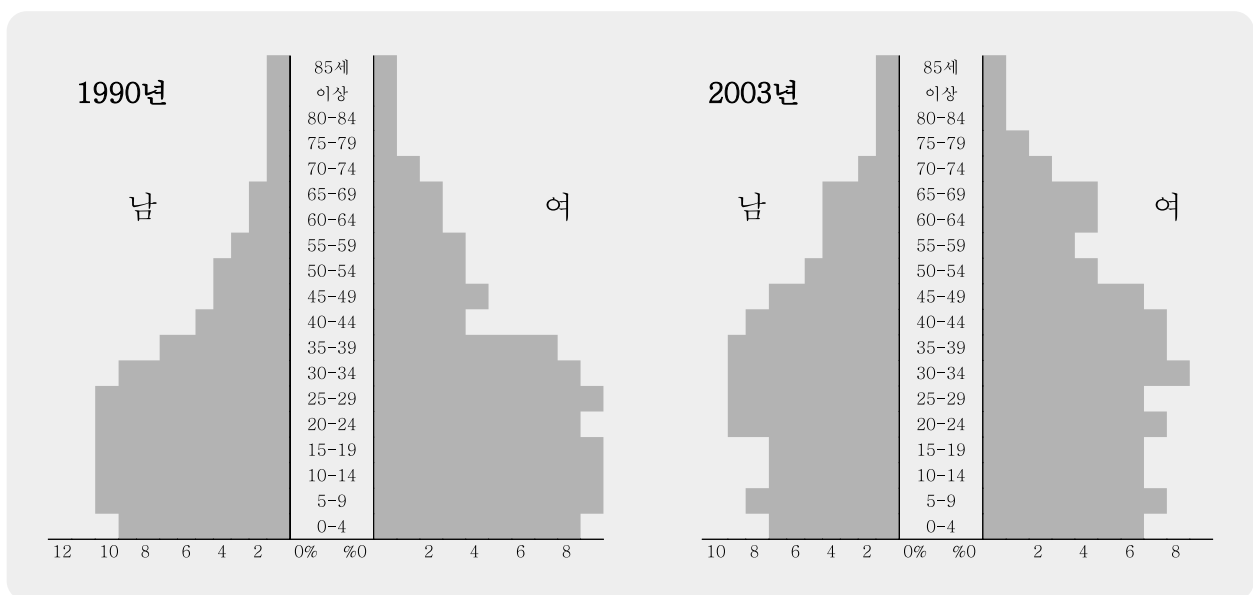
#### 1)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증평균의 성별 인구를 보면 2003년 남자는 15,933인이고 여자는 15,587인으로 성비가 102.2로 남자가 조금 많은데, 이를 1990년의 성비 103.9와 비교해 보면 지난 13년 동안 남자가 다소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별 인구구성은 1990년 15~19세의 연령층의 인구가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9세 연령층(10.0%), 25~29세 연령층(9.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30~34세의 연령층의 인구가 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아 1990년과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35~39세 연령층(8.8%), 20~24세 연령층(8.5%), 25~29세 연령층(8.2%), 40~44세 연령층(7.9%)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연령층의 인구성비는 낮아지고

청·장년층의 인구구성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인구는 28.9%,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65.6%,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5.6%이었으나 2003년에는 유·소년층 인구가 20.6%로 줄어들었고,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69.1%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10.3%로 크게 증가하여 노년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성과 연령층에 의한 인구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증평균의 평균 연령(mean age)은 2002년 34.6세에서 2003년 35.0세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증평균의 노년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 젊은층이 도시로 선택적 인구이동을 하였고, 또 출생률이 떨어져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과 2003년의 인구피라미드의 유형변화를 보면, 1990년은 표주박형이고, 2003년은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그림 2).

●● 그림 2. 증평균의 인구 피라미드(1990·2003년)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중청북도)』, 1992, 66쪽의 증평균과 68쪽의 도안면을 합친 내용; 증평균, 『통계연보』, 2004, 57-59쪽.

2) 유·소년 부양 인구지수 = (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100

3) 노년 부양 인구지수 = (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100

4) 노령화 지수 = (노년인구/유·소년인구)×100

2003년 증평균의 유·소년 부양 인구지수<sup>2)</sup>는 29.9%로 전국의 28.4%보다 다소 높고, 노년 부양지수<sup>3)</sup>는 14.9%로 전국평균 13.5%보다 높아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sup>4)</sup>는 49.7%로 전국의 47.6%보다 높아 노년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인구를 65~74세의 전기 노령층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층으로 나누어 보면, 전기 노령층은 7.1%, 후기 노령층은 3.2%로 전기 노령층이 많다.

## 2) 민족별 인구구성

2003년 증평균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210인으로 증평균 인구수의 0.7%를 차

지하였다. 이 가운데 남자가 39.5%로 여자가 많고, 민족별로는 중국인이 65인으로 전체 외국인수의 31.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24.3%), 기타(19.0%), 필리핀인(6.2%), 일본인(5.7%), 인도네시아인(5.2%)의 순이다. 외국인 중 남녀의 구성비가 같은 미국을 제외하면 남자가 많은 국가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이고, 나머지 국가는 여자가 많다. 읍·면별 외국인 분포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증평읍은 외국인 거주자가 165인으로 가장 많고, 도안면은 45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도안면은 남자가 많으나 증평읍은 여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표 4).

●● 표 4. 증평군의 민족별 인구구성(2003년)

읍·면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스리랑카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증평읍		11	11	1	1	2	19	29	48	1		1	1		1		6	6
도안면		1	1				11	6	17	4		4	10		10			
증평균		12	12	1	1	2	30	35	65	5		5	11		11		6	6

읍·면	필리핀인			베트남인			우즈베키스탄			기 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증평읍	1	9	10	4	40	44	5		5	17	20	37	49	116	165
도안면	1	2	3	7		7				1	2	3	34	11	45
증평균	2	11	13	11	40	51	5		5	18	22	40	83	127	210

### 3) 사회적 인구구성

가구는 하나의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가구는 보통 일반 가구와 집단가구로 나누어지는데, 집단가구는 기숙사, 교도소 등과 같이 동일한 건물에서 생활하지만, 일상적인 가구와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일반가구는 혈연(친족)가구와 비혈연(비친족)가구로 나누어지는데, 혈연가구는 친족관계 또는 가족관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가구이고, 비혈연가구는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경우로 일반가구에 속한다. 2000년 증평군의 세대 구성의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증평군에는 2세대 가구가 67.6%를 차지하여 반 이상의 가구가 2세대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은 3세대 가구(17.9%), 1세대 가구(9.6%), 1인 가구(3.7%), 4세대 이상 가구(0.5%), 비혈연가구(0.7%)의 순이다. 핵가족<sup>5)</sup>은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데, 증평군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가구가 모두 미혼자녀라고 간주한다면 핵가족률<sup>6)</sup>은 70.9%로 가구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표 5).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62-63쪽.

5) 핵가족 중에는 단독가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단독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6) (핵가족수/총가족수)×100로 산출한다.

●● 표 5. 중평군의 가구별 인구구성(2000년)

구 분		인구수	%	구 분		인구수	%
1세대 가구	부부	2,542	8.9	2세대 가구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58	0.6
	부부+형제자매	15	0.1		조부모+손자녀	156	0.5
	부부+기타 친인척	12	0.0		기타	818	2.9
	가구주+형제자매	96	0.3	3세대 가구	부부+자녀+양친	1,023	3.6
	가구주+기타 친인척	24	0.1		부부+자녀+편부모	2,577	9.0
	기타	53	0.2		기타	1,520	5.3
2세대 가구	부부+자녀	15,944	55.9	4세대 이상 가구		146	0.5
	편부+자녀	288	1.0	1인 가구		1,064	3.7
	편모+자녀	1,461	5.1	비혈연가구		195	0.7
	부부+양친	100	0.4	계		28,525	100.0
	부부+편부모	333	1.2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282-283쪽.

2000년 중평군의 연령층별 가구수를 보면, 35~39세 연령층이 14.5%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44세 연령층의 가구주가 12.9%, 30~34세 연령층의 가구주가 11.3%, 45~49세(10.7%), 60~64세(9.3%)의 순으로 15세 미만의 가구주는 없다(표 6).

●● 표 6.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구성(2000년)

연령층	가구수	%	연령층	가구수	%
15세 미만	-	0.0	55~59세	724	8.3
15~19세	23	0.3	60~64세	811	9.3
20~24세	131	1.5	65~69세	662	7.6
25~29세	510	5.9	70~74세	437	5.0
30~34세	988	11.3	75~79세	261	3.0
35~39세	1,266	14.5	80~84세	105	1.2
40~44세	1,119	12.9	85세 이상	33	0.4
45~49세	935	10.7	계	8,707	100.0
50~54세	702	8.1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340-341쪽.

다음으로 가구 형태별 일반 가구수를 보면 60~64세 고령자 부부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38.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 가구수(20.1%), 60~64세 고령자 단독가구(16.7%),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가구(13.0%)로, 60세 이상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88.6%를 차지한다(표 7).

●● 표 7. 가구형태별 일반가구(2000년)

구 분		가구수	%
20세 미만 가구주 가구		23	0.7
부자 가구		80	2.3
모자 가구		287	8.4
고령자 단독가구	60~64세	571	16.7
	65세 이상	444	13.0
고령자 부부가구	60~64세	1,329	38.8
	65세 이상	689	20.1
계		3,423	100.0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  
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344쪽.

다음으로 교육정도별 인구구성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26.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이 14.4%, 미취학(10.0%), 초등학교 재학(10.0%), 중학교 졸업(9.6%)의 순이고, 대학원 재학·중퇴·수료·졸업이 0.8%로 가장 낮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6~14세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학생이 가장 많고, 15~19세까지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가장 많다. 또 20~44세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으며, 45~69세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고, 70세 이상은 미취학이 가장 많다. 그러므로 연령층에 따라 교육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 표 8.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2000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수료	졸업
6~9세	1,547												
10~14세	1,095		6	869	1	4	12						
15~19세			2	263	17	30	1,300	20	187	280			6
20~24세			7		4	50	12	19	710	488	19	1	251
25~29세			26		6	68		26	1,338	65	15	8	349
30~34세		7	40		5	133		20	1,511	15	16	4	280
35~39세		6	175		13	335		28	1,292	9	19	1	258
40~44세		11	381		25	569		17	843	3	6	1	77
45~49세		26	537		21	499		7	453	1	3	1	23
50~54세		11	517		15	321		11	242		1		16
55~59세		54	574		13	220		4	169		4		12
60~64세		72	646		15	168		6	129		4		12
65~69세		48	482		8	92		5	81		2		12
70세 이상		34	423		6	47		3	37				3
계	2,642	269	3,816	1,132	149	2,536	1,324	166	6,992	861	89	16	1,299
%	10.0	1.0	14.4	4.3	0.6	9.6	5.0	0.6	26.4	3.3	0.3	0.1	4.9



구분	대학교				대학원				미취학	계	%
	재학	중퇴	수료	졸업	재학	중퇴	수료	졸업			
6~9세									381	1,926	7.3
10~14세									2	1,989	7.5
15~19세	183				5				1	2,289	8.7
20~24세	430	12		87	24	3		10	2	2,097	7.9
25~29세	101	5	1	337	14		1	24	5	2,388	9.0
30~34세	16	15	5	356	17	1	12	27	18	2,491	9.4
35~39세	9	22	1	311	6		12	24	20	2,556	9.7
40~44세	4	7	1	138	1		7	8	46	2,166	8.2
45~49세	1	6		79			4	7	38	1,708	6.5
50~54세	2	9	1	33			2	1	54	1,242	4.7
55~59세		7		29			2	3	167	1,256	4.7
60~64세		8		27			3		343	1,436	5.4
65~69세			1	23			1		412	1,167	4.4
70세 이상		1		10					1,168	1,732	6.5
계	746	92	10	1,430	67	4	44	104	2,657	26,445	100.0
%	2.8	0.3	0.0	5.4	0.2	0.0	0.2	0.4	10.0	100.0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160-163쪽.

7) 기타는 연소, 연로, 장애인 등임.

#### 4) 산업별, 직업별 인구구성

2002년 중평균의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11,597인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1,206인(가사, 통학, 기타<sup>7)</sup>)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5.2%이다.

중평균의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비를 보면 1차 산업에 14.9%, 2차 산업에 21.2%, 3차 산업에 63.9%를 차지하여 3차 산업의 인구구성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차 산업의 순으로 1차 산업의 인구구성비가 가장 낮아 농업적 성격이 약한데, 이는 농공단지와 충북의 중심도시 청주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제조업에 취업한 인구수가 전체 취업자수의 21.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15.5%), 농업 및 임업(14.9%), 숙박 및 음식점업(1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건설업(6.3%)의 순서로 나타난다(표 9).

●● 표 9. 중평균의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비(2000년)

산업	취업자		산업	취업자	
	수	%		수	%
농업 및 임업	1,734	14.9	건설업	728	6.3
어업	-	0.0	도매 및 소매업	1,799	15.5
광업	-	0.0	숙박 및 음식점업	1,326	11.4
제조업	2,458	21.2	운수업	359	3.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	0.1	통신업	136	1.2

산 업	취업자		산 업	취업자	
	수	%		수	%
금융 및 보험업	365	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76	8.4
부동산 및 임대업	90	0.8	교육서비스업	534	4.6
사업서비스업	233	2.0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69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24	1.1	국제 및 외국기관	-	0.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47	4.7	미 상	-	0.0
가사서비스업	9	0.1	계	2,682	100.0

다음으로 2000년 중평균의 직업별 인구구성비를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가 15.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14.4%), 판매종사자(14.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1.4%)의 순서로 이들 4개 직업의 종사자수가 전체 종사자수의 55.7%를 차지한다(표 10).

● ● 표 10. 직업별 종사자 구성비(2000년)

직 업	종사자		직 업	종사자	
	수	%		수	%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51	2.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571	15.7
전문가	402	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74	7.8
기술공 및 준전문가	509	5.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42	11.4
사무종사자	1,047	10.5	단순 노무 근로자	784	7.9
서비스 종사자	1,433	14.4	기 타	645	6.5
판매 종사자	1,421	14.2	계	9,979	100.0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3권 통근·통학)』, 2002, 758-759쪽.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3권 통근·통학)』, 2002, 732-733쪽.

## 4. 인구동태와 인구 이동

### 1) 인구동태

2003년 중평균의 인구동태를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과 사망에서 군 평균 보통출생률<sup>8)</sup>은 9.6% 이고, 군 평균 보통사망률<sup>9)</sup>은 7.0%로 보통출생률이 보통사망률보다 높아 자연증가율이 2.6%이다. 성별로 본 출생자수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고, 사망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2000년 현재 중평균의 15세 이상 인구 중 유배우자가 63.2%, 미혼자가 26.1%를 차지하는데, 2003년 군 평균 혼인율<sup>10)</sup>은 5.5%이고, 군 평균 이혼율은 2.1%이다(표 11). 그리고 2000년 사별자는 2,080인으로 60세 이후의 사별

8) (1년간 출생자수/인구수) × 100

9) (1년간 사망자수/인구수) × 100

10) (1년간 결혼건수/인구수) × 100

자가 전체 사별자의 76.8%를 차지한다.

●● 표 11. 증평군의 인구동태(2002년)

군 명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출생자수			보통	사망자수			보통	혼인	혼인율	이혼	이혼율
	남	여	계	출생률(%)	남	여	계	사망률(%)	건수	(%)	건수	(%)
증평군	139	163	302	9.6	118	102	220	7.0	172	5.5	66	2.1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60-61쪽.

11) (전입인구+전출인구)/인구수×100

## 2) 인구이동

2003년 증평군의 총 인구이동률<sup>11)</sup>은 40.9%로, 이 가운데 전입률은 20.9%, 전출률은 20.0%로 인구수의 약 25%가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를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순이동률은 0.9%를 나타냈다(표 12).

●● 표 12. 증평군의 인구이동(2003년)

구 분	총 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순이동	
	전 입	%	전출	%	수	%	전입	%	전출	%	이동자수	%
증평군	6,464	20.9	6,188	20.0	1,764	5.7	1,727	5.6	1,714	5.5	276	0.9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60-61쪽.

## 5. 인구문제와 인구 대책

증평군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다음 세 가지의 인구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소자녀를 들 수 있다. 즉, 2003년 25~34세 연령층 인구수가 5,354인이고, 0~14세 연령층 인구수가 6,468인므로, 25~34세 연령층 인구 당 0~14세 연령층 인구수는 1.2인이다. 그래서 부부당 자녀수를 예측하면 2.4인의 자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부당 자녀수는 1990년 3.1인에 비해 적어진 현상으로 자녀수가 감소함으로써 장차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노령화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인데, 증평군은 1993년에 6.6%이던 것이 2003년에는 10.3%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를 거쳐 노년인구 14%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우대 사업과 노인복지관 증설,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소득원의 상실로 인한 빈곤과 질병, 심한 소외감과 함께 역할 상실에 대

한 허탈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다한 부녀화 문제이다. 2003년 중평균의 인구 중 대체로 5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의 성비가 높으나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자의 성비가 매우 높아져 노년기 후기에는 성비가 45.5이다. 이는 남자의 경우 오랫동안 산업활동에 종사하여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등에 의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 노년기에는 오랫동안의 취업활동으로 쌓인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고, 또 신체적 소모 등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남자는 흡연과 음주 및 자동차 운전 등을 많이 하여 사망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남자의 성비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건강을 계도하여 60세 이상의 부부가 함께 해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증평노인회 사회봉사활동 광경

마지막으로 2000년 중평균의 상주인구(28,788인)에 대한 주간인구(25,967인)를 살펴보면, 그 배수는 0.90으로 상주인구가 많다. 이는 주간에 다른 지역으로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0.88이고, 여자는 0.93으로 남자의 주간인구 배수가 평균 이하로 낮다. 그리고 연령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0.99로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배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60세의 연령층이 0.98, 40~50세 연령층(0.91), 20세 미만(0.90), 30~40세 연령층(0.90)의 순이며, 20~30세의 연령층(0.76)이 가장 낮아 상주인구가 많은 것은 중평균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산업시설과 교육 및 문화시설을 유치하여 주간인구를 끌어들이고, 또한 경제하부구조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 제2절 취락

## 제2절

### 1. 취락의 입지와 형태

취락이 어떤 장소를 선정하여 성립하는가는 삶의 입지에 해당된다. 중평균의 취락은 산록부나 평야지대에 주로 집촌을 형성하고 있다. 중평균 자연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 표 13. 증평군의 취락입지에 의한 마을 구분

구분	마을 이름
우물마을	도안면 석곡리 산정(山井)마을
하천과 관련이 있는 마을	증평읍 연탄리·반탄·용강마을, 남하리 한천·포천마을, 남차리 장천마을, 도안면 송정리 월강·소강정마을
영(嶺) 마을	증평읍 송산리 송티마을, 남차리 탄티마을, 용강리 석현마을, 율리 밤티마을
종교와 관련있는 마을	증평읍 내성리 삼성맹이마을, 남하리 미륵맹이마을, 미암리 미륵맹이마을, 연탄리 탑선이마을
새로 생긴 마을	증평읍 신동리 새터말, 남하리 새터말, 남차리 새터, 연탄리 새터, 증평리 새터말

## 2. 역원 취락의 분포

12) 『高麗史』卷36, 驛站條. 世宗實錄地理志에는 時和로 되어 있음.

13) 대동여지도상에 나타난 도로망의 분포를 보면 직선적인 도로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지역간 이동을 도보에 의존해 왔던 시대에 지형적인 장벽을 무릅쓰고 가급적 지름길을 이용함으로써 이동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

역(驛)은 공문서의 전달과 관리의 왕래와 숙박 및 공물진상 등의 관물 수송을 담당한 곳으로 참(站)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다가 선조 30년(1597) 통신만을 위주로 하는 과발을 두어서 변서(邊書)의 급한 전달을 임무로 했다. 증평군에 분포했던 시화역(時化驛)<sup>12)</sup>청당현(淸塘縣) 서쪽 17리, 10리는 5.1km임]은 지금의 증평읍 미암리 수예마을에 해당된다. 시화역은 청주목과 청안읍의 사이 [약 40리(20.4km)]<sup>13)</sup>에 위치했는데, 청주목으로부터 약 30리(15.3km) 부근에 입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중요도에 따라 3구분[대역(大驛), 중역(中驛), 소역(小驛)]했는데, 시화역은 소역이었으나 역전(驛田)은 100결(結)이 넘었다<sup>14)</sup>

(그림 3).

한편 원(院)이란 공용 여행자와 일반 상여(商旅)를 위한 숙식 제공처로 반민반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이 제도적으로 발전된 시기는 조선 초기이며, 16세기 말부터 점차 황폐화되어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소멸되고 전국에 100여개 만 남아 있었으며, 그 성격도 주점(幕)으로 바뀌었다.

증평군에 분포한 원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청주목에 속해 있었던 포원(蒲院)은 청주읍성 북쪽 37리로 지금의 증평읍 죽리 원평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며, 장후원은 청당현 소속으로 청안에서 서쪽 15리 지금의 증평군에 위치했다(표 14).

●● 그림 3. 대동여지도상 시화역과 역로



●● 표 14. 청당현 관할지역에 분포한 원

문 헌 명	원 명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중종 25년(1530)]	장후원(長候院), 포원(蒲院)

### 3. 종족촌락의 분포

종족촌락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거주집단으로, 우리 나라에서 종족이라고 칭하는 것은 본관[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발상지]과 성이 같은 것을 말하며, 종족촌락은 동성동본자로 구성된 마을을 말한다. 이러한 원시사회 형태의 유풍이 된 마을구성은 점차 교통이 발달하고 사회 경제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쇠퇴 감소했다.

1933년 중평군의 종족촌락이 많은 중평면을 보면, 안동 김씨가 4개 집단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의 이씨이며, 나머지 모두 한 개의 종족촌락이 존재했다(표 15).

●● 표 15. 종족촌락이 많은 읍·면(1933년)

면	집단수	본관 성씨별 동족집단 수
중평면	10	안동 김씨 4, 전의(全義) 이씨 2, 상주 박씨 1, 영산(靈山) 신(辛)씨 1, 곡산(谷山) 연(延)씨 1, 전주 이씨 1

1930년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에는 마을 발생 이래 400년 된 종족촌락 곡산 연씨 75호 350인이 거주를 했는데 종족 인구율이 76.9%(비동족 17호, 105인)를 차지했다(표 16).

●● 표 16. 50호 이상의 저명한 종족촌락(1930년)

부 락	부락 발생 이래	동 족 성 씨	동 족			비 동 족		마 율 호 수
			호수	인구	동족인구율 (%)	호수	인구	
도안면 화성리	400년	곡산연씨	75	350	76.9	17	105	92

1933년 1개 면에 100가구 이상의 동족마을을 보면 중평면과 도안면에서 볼 수 있는데, 중평면에는 안동 김씨와 곡산 연씨가, 도안면에는 곡산 연씨의 종족촌락이 각각 입지했다(표 17).

기 때문에 생각된다. 8세기 일본의 경우 직선적 도로를 부설하게 된 것은 유수사(遺隋使)가 수(隋)나라의 계획도로를 보고 와서 설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木本雅康, 『古代傳路研究の成果と課題』, 『人文地理』第54卷, 2002, 314쪽).

14) 世宗實錄 卷 109, 27年 7月 乙酉條.

❑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後篇)』, 1933, 京城, 518쪽.

❑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後篇)』, 1933, 京城, 464쪽.



도안면 화성 5·6·7리  
곡산연씨 세거지묘

●● 표 17. 1면 100가구 이상의 종족마을(1933년)

면 명	동 족 성 씨
곡산군 증평면	안동김씨, 곡산 연씨
곡산군 도안면	곡산 연씨

☞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後篇)』, 1933, 京城, 543-555쪽.

## 4. 취락의 기능

### 1) 전업·겸업농가

증평군의 촌락 형태는 집촌을 주로 이루고 있으며, 기능상으로는 농촌이 적은 편이다. 군의 농가율은 18.9%이나 읍·면간의 농가율 변동은 크다. 농가율이 가장 높은 도안면은 52.4%이고, 증평읍은 15.2%로 농가구성비가 낮다(표 18).

●● 표 18. 증평군의 읍·면별 농가율

구분 \ 읍·면	증 평 읍	도 안 면	계
가 구 수 (2002년)	9,294	1,030	10,324
농 가 수 (2000년)	1,413	540	1,953
농 가 율 (%)	15.2	52.4	18.9

☐ 증천지소와 장평지소를 합하여 증평읍이라 하였음.  
증평군, 『통계연보』, 2003, 50, 84쪽.

취락의 농업적 기능으로써 농업경영은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00년 증평군 각 읍·면의 전업과 겸업농가의 구성을 보면 표 19와 같다.

●● 표 19. 증평군의 전·겸업농가의 구성(2000년)

읍·면	농가수	전업농가		겸업농가		
		농가수	%	1종겸업	2종겸업	계
증평읍	1,413	762	70.0	252	399	651
도안면	540	327	30.0	125	88	213
증평군	1,953	1,089	100.0	377	487	864

☐ 증천지소와 장평지소를 합하여 증평읍이라 하였음.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 보고서(충청북도)』, 2002, 106-107쪽.

중평균은 전업농가가 전체 농가수의 55.8%를 차지하여 전업농가가 탁월하다. 도안면은 군 평균보다 전업 농가율이 높다. 그리고 겸업농가는 증평읍(46.1%), 도안면(39.4%)의 순으로 낮다. 겸업농가 중 농업 이외 소득이 더 많은 2종 겸업 농가율은 증평읍이 28.2%, 도안면이 39.4%로 농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농업외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읍·면의 기능 분포

다음으로 증평군 각 지소의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 산업의 기능체 분포를 보면 모두 1,926개가 입지하고 있는데, 기능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기능체수의 33.4%)이고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24.1%)이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14.2%), 운수업(10.6%)의 순으로 이들 두 업종이 전체 기능체수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체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증평읍이 95.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도안면은 4.6%로 기능상으로 보아 증평읍은 증평군에서 제1계층에 속하고, 도안면은 제2계층에 속하여 증평군의 중심지는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0).

●● 표 20. 증평군의 읍·면별 기능체 분포(2002년)

■ 증천지소와 장평지소를 합하여 증평읍이라 하였음.  
[http://www.jeungpyeong.chungbuk.kr/open/open\\_02\\_03\\_03.html](http://www.jeungpyeong.chungbuk.kr/open/open_02_03_03.html)

기능체	읍·면	증평읍	도안면	계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		2	0.1
건설업		30	1	31	1.6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		618	26	644	33.4
숙박 및 음식점업		455	10	465	24.1
운수업		177	27	204	10.6
통신업		3	1	4	0.2
금융 보험업		29	1	30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31	1.6
사업 서비스업		28	1	29	1.5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9	2	11	0.6
교육 서비스업		81	2	83	4.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6	2	48	2.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70		70	3.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59	15	274	14.2
계		1,838	88	1,926	100.0
%		95.4	4.6	100.0	



## 5. 주택의 유형



2000년 중평군의 주택수는 8,870호로 주택보급률은 101.5%이다. 주택의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이 48.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가 41.1%를 차지한다. 읍·면별 주택의 유형을 보면 증평읍이 중평군 전체 주택수의 87.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도안면은 12.1%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주택유형별로 보면, 모든 주택유형이 증평읍에 많고, 도안면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없다(표 21).

●● 표 21. 주택 유형별 읍·면별 분포(2000년)

읍·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거이외의 거처	계	%
증평읍	3,457	3,445	458	196	236	38	7,792	87.8
도안면	867	199			12	3	1,078	12.1
중평군	4,324	3,644	458	196	248	41	8,870	100.0
%	48.7	41.1	5.2	2.2	2.8	0.5	100.0	

□ 증천시소와 장평지소를 합하여 증평읍이라 하였음  
통계청 『2000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27쪽

2000년 중평군의 주택 점유형태 구성비를 보면 자가 69.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세가 14.3%를 차지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수는 4개가 41.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개(30.4%)의 순으로 평균 사용방수는 3.6개이다(표 22).

●● 표 22. 주택의 점유형태별, 사용방수별 일반가구 구성비(2000년)

주택 점유 형태	자 가	전 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 상	계
가수수	5,686	1,171	562	90	49	609	8,167
%	69.6	14.3	6.9	1.1	0.6	7.5	100.0
사용방수	1	2	3	4	5	6개 이상	계
가구수	281	759	2,650	3,593	1,165	259	8,707
%	3.2	8.7	30.4	41.3	13.4	3.0	100.0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322쪽, 414쪽.

2000년 중평군의 주거시설의 형태별 일반가구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평군에 분포한 주택의 부엌은 입식부엌이 94.2%를 차지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각각 4,041가구, 3,281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재래식 부엌을 가진 단독주택은 456가구이다. 또 일반가구의 78.6%가 수세식 화장실이고, 단

독주택의 20.3%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단독주택에서의 화장실 개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온수 목욕시설을 갖춘 일반가구는 전체가구수의 86.2%이고 단독주택에서도 75.5%가 온수시설을 갖추고 있다(표 23).

●● 표 23. 주거시설의 형태별 일반가구수

구 분			주 택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수
			단 독 주 택	아파트	연 립 주 택	다세대 주 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		
부 업	입 식	단독	4,035	3,278	439	170	251	22	8,195
		공동	6	3	2				11
	재래식	단독	452			1	18	4	475
		공동	4						4
		없음	10			1	1	10	22
화장실	수세식	단독	2,717	3,278	439	171	190	10	6,805
		공동	24	3	2		11		40
	재래식	단독	1,587			1	59	18	1,665
		공동	177				10		187
		없음	2					8	10
목 욕 시 설	온 수	단독	3,396	3,278	438	165	199	13	7,489
		공동	7	3	2		2		14
	비온수	단독	245				6	3	254
		공동	2				2		4
		없음	857		1	7	61	20	946
가구수			4,507	3,281	441	172	270	36	

2000년 중평군의 주택 유형별 연건평을 보면, 19~29평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4~19평의 아파트, 19~29평의 아파트, 14~19평의 단독주택의 순으로 이들 4개 연건평에 전체 가구수의 66.3%가 거주하고 있다(표 24).

●● 표 24. 중평군 주택의 종류별 연건평(2000년)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계	%
7평 미만	19	1			23	43	0.5
7~9평	44	313	1	23	12	393	4.8
9~14평	322	345	28	12	22	729	8.9
14~19평	912	1,430	214	49	36	2,641	32.3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328-329쪽.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용 건물 내 주택	계	%
19~29평	1,977	1,097	195	62	72	3,403	41.7
29~39평	519	35	2	19	41	616	7.5
39~49평	148	9	1	7	15	180	2.2
49~69평	84	50			8	142	1.7
69~99평	11				3	14	0.2
99평 이상	6					6	0.1
계	4,042	3,280	441	172	232	8,167	100.0
%	49.5	40.2	5.4	2.1	2.8	100.0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  
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432쪽.



사곡리 상공에서 본  
주공4단지아파트

중평균의 건축 연도별 주택수를 보면, 1990~1994년 사이에 건축된 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31.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985~1989년 사이가 16.4%, 1980~1984년 사이가 13.8%, 1995년이 11.2%를 차지하여 1980~1995년 사이가 전체 주택수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표 25).

●● 표 25. 건축연도별 주택수(2000년)

연 도	주택수	%	연 도	주택수	%
1959년 이전	521	6.3	1996년	151	1.8
1960~1969년	351	4.3	1997년	141	1.7
1970~1979년	780	9.5	1998년	94	1.1
1980~1984년	1,135	13.8	1999년	70	0.9
1985~1989년	1,342	16.4	2000년	98	1.2
1990~1994년	2,566	31.3	중 평균	8,197	100.0
1995년	918	11.2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  
조사보고서(충청북도)』,  
2002, 450쪽.

## 6. 주거문제와 그 대책

2003년 중평균의 주택 호수는 9,425호로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5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파트(42.4%), 연립주택(4.6%), 다세대 주택(1.9%), 다가구 주택(0.7%)의 순이다. 중평균의 가구수는 9,055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104.0%이다. 그러나 2000년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자가 6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세(14.3%), 무상(7.5%),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가 각각 6.9%,

1.7%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에 폐가<sup>15)</sup>가 많아 수치상 높은 주택보급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2004년 중평균의 폐가분포를 보면, 총 폐가는 150호로 이 가운데 중평읍이 100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도안면이 50호로 이들 폐가의 정비계획은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가는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로 도농간 실수요자에게 폐가정보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 거주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표 26)

●● 표 26. 중평균의 폐가 현황(2004년)

읍·면	폐가수	%
중 평 읍	100	66.7
도 안 면	50	33.3
중 평 군	150	100.0

■ 중평균 도시개발과 「내부자료」, 2004.



중평읍 율리 폐가

15) 폐가는 빈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절 지역구조의 변화

### 제3절

지역구조는 지역분화 형태와 지역간 결합관계로 구성된다. 지역분화 형태는 지적(地的) 내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짓는 등질지역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또 지역간 결합관계의 구조는 같은 기능에 의해 결합된 지역범위 내에서 형성된 기능지역 내지는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질지역이나 기능(결절)지역에 의한 지역구조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상호 관련을 맺고 통일된 지역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시켜 하나의 통일된 지역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평균의 지역구조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중평균의 지역구조는 중평균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충북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분적 지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근거리에 위치한 청주시와 또 중부고속국도로 연결된 수도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최근 경제·사회의 발달로 지역구조의 형성은 이들 두 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하겠다. 본 절에서 지역구조 중 지역분화는 인문적 여러 사상(事象)에 의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연적 사상에 의한 지역분화의 골격은 앞장의 지형과 기후분야 등에서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사회·경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매우 발달하고 있는 지금 특정지역의 지역구조는 지형·기후 등의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적 여러 현상에서 형성 된다는 점이다.

16) Thomas, D., *Agricultural in Wales during the Napoleonic Wars*, Univ. of Wales Press, 1963, Cardiff, pp.79-95.

■ 증천지소와 장평지소를 합하여 증평읍이라 하였음.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 보고서(충청북도편)』, 2002, 328-461쪽.

17) 『林園經濟志』는 그 내용이 16부문으로 되어 있어 『林園十六志』로 불리워지는데 제1권의 解題에 의하면 순조 27년(1827)경에 편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增補文獻備考』(中) 卷 165, 市 隸考3 鄉市.

## 1. 등질지역

2000년 증평군의 읍·면별 주요 재배작물<sup>16)</sup>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의 8가지로 나누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증평군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은 미곡의 단작형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 모든 읍·면이 미곡이 주요 작물로 단작형이다.

●● 표 27. 증평군의 주요 재배작물

읍·면	주요재배작물
증평읍	미곡
도안면	미곡
증평군	미곡

## 2. 기능지역

### 1) 생활권으로서의 정기시(장시) 분포 변화

증평군의 정기시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순조 27년(1827)경에 발간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sup>17)</sup>의 「예규지(倪圭志)」에 의하면 청안현(淸安縣)에는 2개 정기시가 분포했는데, 그 중 근서면(近西面) 반탄장(潘灘場)에 입지한 반탄 정기시가 지금의 증평군에 속한다. 반탄 정기시(1·6일)는 청안읍의 서쪽 15리 되는 지역에 입지했으며, 목화, 연초, 철물, 명주를 주로 거래

하였다. 그 뒤 융희 2년(1908)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시적고(市籍考)」 향시(鄉市)<sup>18)</sup>에 의하면 청안읍내 정기시는 진암(鎭岩) 정기시(4·9)로 이름이 바뀌어졌으나 반탄 정기시의 명칭은 변함이 없었다.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시장경제(朝鮮의 市場經濟)』에 의하면, 증평면에는 1호 시장인 반탄 정기시가 개시됐다. 그리고 1938년에도 증평군의 정기시수와 개시일은 변함이 없었으며, 연간 판매액은 반

●● 그림 4. 증평군과 그 인접지역의 정기시 분포



탄 정기시가 청안 정기시의 37.5배에 달했다. 1964년에는 도안정기시(5·10)가 새로 개시됐으나 1974년에 폐시됐다. 1976년 증평 정기시의 하루 매상액은 약 150만원이었다. 2004년 현재 증평군에는 증평정기시만이 개시되고 있다(그림 4).

●● 표 28. 증평군 정기시의 시기별 분포

임원경제지 (1827년경)			증보문헌비고 (1908년)			조선의 시장경제 (1929년)		
정기시	소재지	개시일	정기시	소재지	개시일	정기시	소재지	개시일
반탄	청안현 근서면	1·6	반탄	청안현 근서면	1·6	반탄	증평면 증평리	1·6

조선의 시장(1938년)				1964년			1976년	1997년		2003년		폐시 연월일 (개시일 변경)
정기시	소재지	개시일	연간 판매액 (円)	정기시	소재지	개시일	1일 판매액 (천원)	소재지	개시일	소재지	개시일	
반탄	증평면 증평리	1·6	1,404,142	증평	증평읍 증평리	1·6	15,100	증평 출장소 증평리	1·6	증평군 증평읍	1·6	
				道安	道安面 花城里	5·10						1974. 1. 25

이와 같은 정기시의 쇠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1962년 이후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각 중심지에 상설상가가 형성되었으며, 저차 중심지에 농협 연쇄점의 출현, 고차 중심지에 상설시, 슈퍼마켓 등 중심성이 큰 상점이 등장했고, 농·축협을 통한 농·축산물 출하의 유통구조 변화, 교통기관의 발달로 고차 중심지로의 접근성 향상 등과 더불어 인구의 감소가 정기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 2) 이동상인의 속성과 이동수단

### (1) 이동상인의 속성과 거주지 분포

정기시에는 고정상인과 이동상인이 있는데, 1996년 증평정기시의 이동상인과 현지 인터뷰를 통하여 상인의 속성과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시(出市)상인의 성별·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상인이 차지하는 비율(56.7%)이 높고, 연령별로는 30~50대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이동상인 전체의 80.0%를 차지하여 이들이 정기시 상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청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3.3%) 것은 수입이 많지 않고, 특히 정기시를 이동해 다녀야 하는 점 등의 어려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선호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 朝鮮總督府, 『朝鮮의 市場經濟』, 1929, 京城; 文定昌, 『朝鮮의 市場』, 日本評論社, 1941, 東京; 金成勳,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 그 史的 考察과 機能構造 分析 -』, 『農業經濟研究報告』, 88, 1977; 田京淑, 『韓國忠清北道地域における中心地システムの變容に關する研究』, 『地理學評論』, 第56卷, 第7號, 1983, 471-495쪽; 증평출장소 『통계연보』, 1998; 증평군, 『통계연보』, 2004.



증평 장물시장 이동 상인

는 기피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표 29).

●● 표 29. 정기시 이동상인의 연령별 구성

구분	남 (%)	여 (%)	29세 이하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계 (%)
중평균 (%)	17(56.7)	13(43.3)	1(3.3)	6(20.0)	10(33.3)	8(26.7)	5(16.7)	30(100.0)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표기함.  
成俊鏞 · 韓柱成 · 朱京植 · 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37쪽.

다음으로 이동상인이 되기 이전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30.8%)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19.2%), 상업(15.4%), 자영업(15.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0).

●● 표 30. 정기시 이동상인의 이전의 직업

구분	농업	상업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가사	노동	기타	계
중평균 (%)	8(30.8)	4(15.4)	4(15.4)	5(19.2)	1(3.9)	1(3.9)	1(3.9)	2(7.8)	26(100.0)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표기함.  
成俊鏞 · 韓柱成 · 朱京植 · 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37쪽.

정기시 이동상인의 상업경력을 보면, 5년 이하의 경력자가 46.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10년의 경력자가 전체 이동상인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약 80%의 이동상인이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표 31).

●● 표 31. 이동상인의 상업경력

구분	5년 이하	6~10	11~15	16~20	21~25	26년 이상	계
중평균 (%)	14(46.7)	10(33.3)	4(13.3)	1(3.3)	·	1(3.3)	30(100.0)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표기함.  
成俊鏞 · 韓柱成 · 朱京植 · 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37쪽.

이동상인이 정기시의 상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실패가 12.5%를 차지했다(표 32).

●● 표 32. 이동상인의 정기시 상업종사 동기

구분	생계 유지	사업 실패	사업자금 이 적게 들	자녀 학비	직장 실증	생산품 판매	기타	계
중평균 (%)	13(54.2)	3(12.5)	1(4.2)	1(4.2)	1(4.2)	1(4.2)	4(16.7)	24(100.0)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표기함.  
成俊鏞 · 韓柱成 · 朱京植 · 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38쪽.

중평 정기시에 출시(出市)하는 이동상인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중평군에 거주하는 상인이 약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진천읍이 26.6%를 차지하여 정기시가 개시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이동 상인수가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2) 이동상인의 이동수단

정기시의 이동 상인들은 상설점포 상인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으며, 이들은 시장달력(market calendar)에 의해 출시한다. 이들이 이용하는 상품 수송수단은 다양한데, 1960년대 초기에는 장거리 수송의 경우 기차나 완행버스를, 단거리 수송에는 우마차나 리어카 및 자전거 등을 주로 이용했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시대 보부상 내지 서양의 길드(guild) 조직과 비슷한 유형으로 이동상인 5~10명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장차’라는 트럭으로 상품을 수송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정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였으나, 이 형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그릇(기물)이나 농기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은 상품을 시장으로 수송하는 비용보다 창고나 점포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했지만, 상인들은 출시하는 시장수에 제한을 받게 되어 최근에는 이러한 유형을 찾아보기가 드물다. 그 이유는 상인들의 소득증대로 자가용 트럭을 보유하고 많은 양의 상품을 직접 수송하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은 이동상인들의 이동순환 선택의 폭과 정기시 이동지역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다.

표 33은 이동상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동상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트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도보(16.7%), 자가용 승용차(10.0%)를 이용하고 있다.

●● 표 33. 이동상인의 이용 교통수단

구 분	도 보	버 스	자가용			경운기	손수레 · 리어카	계
			승용차	트럭	승합차			
중평균(%)	5(16.7)	2(6.7)	3(10.0)	15(50.0)	2(6.7)	2(6.7)	1(3.3)	30(100.0)

## 3) 소비자의 정기시 이용 행태

정기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소농민이므로 출시한 소비자는 구매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농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의 판매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라는 용어보다 ‘장보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장보는 사람’은 대체로 농민이며, 판매 및 구매활동을 하기 위해 출시하는 일은 농업활동과 분리된 시간에 행한다<sup>19)</sup>.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업상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여기에서 정기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속성인 성별, 연령별, 직업과 이용 교통수단, 소비자의 구매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동차량 행상(도안면 화성리)



증평장물시장 좌판행상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표기함.  
成俊鏞 · 韓柱成 · 朱京植 · 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0쪽.

19) 李宰夏 · 洪淳完, 『한국의 場市』, 민음사, 1992, 서울, 42-52쪽.



## (1) 소비자의 속성

중평균 정기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34), 여자가 전체 소비자의 약 4분의 3으로 정기시에서의 상품구입은 여성이 많아 남자가 농업 등 다른 산업에 종사함에 따른 상품구매의 성적 분업현상이 뚜렷하다. 과거에 정기시를 이용하는 주된 소비자는 농민으로, 그 중에서도 여자가 장에 출입하는 것을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아주 천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부녀자들은 정기시를 잘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시에 구매하는 주된 소비자가 여자로 바뀌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과급된 서구화와 근대화에 따른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관습의 붕괴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대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남자의 출장(出場)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든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40대의 소비자가 약 4분의 3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중평균 정기시 소비자는 30대~40대의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수의 97.5%를 차지 했다(표 34).

●● 표 34.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구 분	남 자	여 자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계
중평균(%)	10(25.6)	29(74.4)	9(23.1)	29(74.4)	1(2.6)	39(100.0)

☞ 당시 중평출장소를 중평균으로 표기함.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6쪽.

한편 정기시 이용 소비자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가사를 포함한 기타가 4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농업·축산업, 회사원(18.0%), 상업·서비스업(15.4%)의 순으로 나타나 주부와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5).

●● 표 35. 소비자의 직업별 구성

구 분	농업·축산업	상업·서비스	회사원	건축업	가사 포함 기타	계
중평균(%)	7(18.0)	6(15.4)	7(18.0)	1(2.6)	18(46.2)	39(100.0)

☞ 당시 중평출장소를 중평균으로 표기함.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6쪽.

## (2) 소비자의 정기시 이용 교통수단

중평균 정기시 소비자가 시장에 오는데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도보가 5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가용 자동차, 시내버스의 순이다. 도보의 비율이 높은 것은 거주지가 정기시로부터 가까운 곳에 형성됐기 때문이다(표 36).

●● 표 36. 정기시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분	도보	자전거	시내버스	자가용 자동차	계
중평균(%)	23(59.0)	2(5.1)	6(15.4)	8(20.5)	39(100.0)

### (3) 소비자의 구매특성

중평균 정기시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특성을 정기시 방문이유, 상품의 구입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정기시 방문이유

중평균 정기시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농민들이 정기시에 출시하는 까닭은 주로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표 37에서와 같이 1차적 방문 이유는 농산물 판매활동(2.5%)은 크게 줄었고, 생활 필수품의 구매활동(85.0%)이 월등히 높아 구매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관공서·농협을 방문하는 부차적 기능이 있으나, 2차적 이유로 관공서·농협을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분전환과 정보교환 및 사교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다목적 이유로 정기시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7. 정기시를 방문하는 이유

년 대	생필품 구입	농산물 판매	정보교환 및 사교	기분전환, 오락(구경)	다양한 상품	관공서, 농협 방문	기 타	계
1980년대 이전(%)	34(85.0)	1(2.5)	·	1(2.5)	2(5.0)	1(2.5)	1(2.5)	40(100.0)
1990년대 이후(%)	2(5.9)	1(2.9)	3(8.8)	4(11.8)	14(41.2)	9(26.5)	1(2.9)	34(100.0)

소비자들이 정기시에서 구입하는 상품을 보면, 식료품이 7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잡화, 생활용품, 생선류, 육류, 청과물의 순으로 의식(衣食)과 관련된 상품이 대부분이다(표 38).

●● 표 38. 정기시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상품

구분	식료품	생선류, 육류	청과물	잡화, 생필품	계
중평균(%)	27(73.0)	4(10.8)	1(2.7)	5(13.5)	37(100.0)

#### ② 정기시의 상품구매 이유

정기시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신선한 농산물이기 때문이 4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거주지 상점보다 값이 싸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 25.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정기시가 주민에게 농산물의 신선도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값이 싸고, 교통적으로 편리하여 상품을 구입한다고 할 수 있다(표 39).

☞ 당시 중평출장소를 중평균으로 표기함.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7쪽.

☞ 당시 중평출장소를 중평균으로 표기함.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8쪽.

☞ 당시 중평출장소를 중평균으로 표기함.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8쪽.

●● 표 39. 정기시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

구분	교통편리	저렴한 가격	상품의 질	신선한 농산물	기타	계
증평균(%)	9(25.0)	9(25.0)	1(2.8)	16(44.4)	1(2.8)	36(100.0)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균으로 표기함.

成俊鏞·韓柱成·朱京植·金學勳, 「금강유역의 정기시 체계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998, 249쪽.

### 3. 그 밖의 기능지역

#### 1) 통근·통학권

통근·통학 유동은 생활권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증평균의 통근·통학 인구는 유입인구가 1,187인, 유출 인구가 4,008인으로 유출 인구가 많다. 그리고 유입과 유출에 있어 통근 인구의 구성비는 각각 66.6%, 59.0%로 통근이 통학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유출 통근율은 20.4%를 차지하고, 재학생 중에서 유출 통학률은 41.0%를 차지하여 통학률이 높다.

증평균에 거주하는 통근·통학 인구에 대하여 시·군·구별 통근·통학지를 살펴보면, 증평균에 70.9%가 통근·통학하고 있어 내적 결합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주시(통근·통학률 : 17.3%), 청원군(2.9%), 진천군(2.5%), 괴산군(2.1%), 음성군(1.3%), 충주시(1.1%)의 순이다. 따라서 통근·통학률 1% 이상의 증평균 통근·통학권은 증평균을 포함하여 청주시, 청원·진천·괴산·음성군으로 인접지역에서의 통근·통학권이 형성됐다(표 40).

□ 당시 증평출장소를 증평균으로 표기함.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제3권 통근·통학)』, 2002, 440-443쪽.

●● 표 40. 증평균 통근·통학지

통근·통학지 거주지	통근·통학지	대 전 시					충 청 북 도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계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증 평 군	남	11	22	11	11	55	1,371	100	187		251
	여			22	11	33	1,007	46	206	10	101
	계	11	22	33	22	88	2,378	146	393	10	352
	%	0.1	0.2	0.2	0.2	0.6	17.3	1.1	2.9	0.1	2.5

통근·통학지 거주지	통근·통학지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기타	합계	%
		괴산군	음성군	증평균	계	천안시	연기군	계			
증 평 군	남	157	147	5,717	7,930	9	23	32	124	8,141	59.1
	여	130	29	4,053	5,582		10	10	12	5,637	40.9
	계	287	176	9,770	13,512	9	33	42	136	13,778	100.0
	%	2.1	1.3	70.9	98.1	0.1	0.2	0.3	1.0	100.0	

## 2) 통학구역

증평군의 중학교 진학은 추첨에 의해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모두 5개로 증평읍에 4개, 도안면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괴산군 청안초등학교는 증평읍 읍리 2구 내봉마을을 포함하는 통학구역을 갖고 있다(표 41).

●● 표 41. 증평군 초등학교의 학교구역

일련 번호	학교명	초등학교 학교구역	
		읍·면	해당 지역
1	청안초등학교	증평읍	읍리 2구 내봉부락
2	증평초등학교	증평읍	증평 1리 1·2반, 증평 2리, 증평 3리 1·2반 일부(676, 677, 678, 679, 681, 682 번지), 장동 1~5리, 증천 1~5리, 내성 1리 삼선동, 내성 2리, 대동 1리, 교동 1, 2리, 송산 1~3리, 미암 1~5리, 사곡 1~3리, 용강 1~4리, 중동 1리, 중동 2리(5, 6반 제외) 일부, 남하리 2구
3	죽리초등학교	증평읍	죽리 1, 2구, 덕상 1~3구, 효근 1~3구, 남하리 1, 3, 4구, 읍리 1구, 읍리 2구 일부(내봉부락 제외)
4	삼보초등학교	증평읍	증평 1리(1·2반 제외) 일부, 증평 3리(1·2반 일부 제외) 일부, 신동 1~5리, 창동 1~5리, 내성 1리(삼선동 제외) 일부, 연탄리 1~4구, 초중리 1~4구, 중동리 2동 5, 6반
5	도안초등학교	도안면	화성리 1~7구, 석곡리 1, 2구, 노암리 1~4구, 송정리 1~5구, 광덕리 1~3구, 연촌리, 도당리 4구

☐ 괴산군교육청 관리과, 「내부자료」, 2005.

## 3) 군내 버스 노선망의 분포

군내 버스의 운행권은 하루 생활권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증평군의 군내 버스 운행노선은 모두 16개로 124회 운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괴산방면의 운행노선의 하루 운행회수가 18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음성방면이 15회, 청천방면 12회, 오창, 소매리 방면이 각각 11회이다. 따라서 증평군은 군내 뿐만 아니라 인접한 괴산군, 음성군과의 지역간 연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

●● 표 42. 증평군 공영 군내버스 노선의 운행회수

출발지	도착지	1일 왕복 운행회수	출발지	도착지	1일 왕복 운행회수	출발지	도착지	1일 왕복 운행회수
증평읍	음성	15	증평읍	송산리	4	증평읍	청주과학대학	7
	청천	12		소매리	11		청용, 방곡	5
	장암	2		괴산	18		조천리	8
	오창	11		숫고개	8		송정리	5
	요골	1		효근리	5	계		124
	읍리	9		청안, 문방	3			

☐ [http://jeungpyeong.chungbuk.kr/culture/culture\\_03\\_09\\_01\\_02.html](http://jeungpyeong.chungbuk.kr/culture/culture_03_09_01_02.html)

#### 4) 중추관리기능의 관할지역

중추관리기능이란 사무소(office) 기능 또는 관리(management)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증평군의 행정적 중추관리기능의 입지수를 보면, 증평읍에 11개, 도안면에 3개가 분포하여 증평군에서 증평읍의 계층이 가장 높은 제1차 중심지이고, 그 다음으로 도안면은 제2차 중심지이다.

각 중추관리기능의 관할지역을 보면, 증평군청, 경찰·소방관서는 증평군 전체를 관할하고, 읍·면사무소와 경찰지·파출소, 우체국은 각 읍·면을 관할하고 있다(표 43).

●● 표 43. 주요 관공서 및 기관의 분포

읍·면	지방행정관서		경찰·소방관서			우체국*	전화국	협동조합	계
	군청	읍·면사무소	경찰지·파출소	소방서	소방파출소				
증평읍	1	1	1	1	1	2	1	3	11
도안면		1	1			1			3
계	1	2	2	1	1	3	1	3	14

□ 분국, 군우국 포함.  
증평군, 『통계연보』, 2004,  
288-291쪽.

●● 그림 5. 1895·1970·2004년 증평군의 지역구조 변화 (1)



1895년 당시의 증평군 지형도(1:50,000)

#### 4. 지역구조의 변화

구한말인 1895년 제작된 1:50,000 지형도에 나타난 증평읍 부근의 지역구조를 보면 지금의 도로가 거의 분포하고 있었으나, 충북선이 부설되지 않아 교통의 요지로서 취락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과 2004년에 발간된 1:50,000 지형도를 비교해 보면 증평군의 최고차 중심지인 증평읍의 지역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먼저 1970년의 시가지는 증평읍의 증평역을 중심으로 증평리가 발달했으며, 각 자연마을의 집촌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2004년에는 시가지의 발달과 더불어 34번, 36번의 국도와 510·540·592번 지방도 및 포장된 1·2·3·9번 군도와 나머지 비포장의 군도로 군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게 하여 지역간의 결합이 더욱 강화 됐다(그림 5).

●● 그림 5. 1895·1970·2004년 증평군의 지역구조 변화 (2)



1970년 당시의 지형도(1:50,000)



2004년의 지형도(1:50,000)

이와 같이 지역내 및 지역간의 결합에 강해짐에 따라 지역구조의 변화도 나타나 증평군도 도시계획을 실시하게 됐다. 즉, 군의 내부구조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지역분화를 계획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표 44). 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주거지역의 계획구역 면적이 넓다.

●● 표 44. 증평군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구 분	기준 연도	목표 연도	계획구역 면적 (천㎡)	용 도 지 역 (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 정
				일반 주거지역	준거주 지역	일반	일반	생산	자연	일반
증평군	2001	2011	12.78	2.29	0.05	0.21	0.78	0.06	8.88	0.52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72-173쪽.

## 제4절

## 제4절 교통과 통신

정기범 집필

## 1. 도로교통

## 1) 자연·역사지리적 배경

한반도의 지형은 남단에서 시작하여 영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는 태백산맥이 있고, 여기에서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등이 서남서 방향으로 뻗어나 있다. 이러한 산맥 사이에는 산맥과 평행하게 흐르는 하천들이 있고, 하천을 따라 넓은 분지가 발달했으며, 그 분지 내에는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우리들의 중요한 생활터전이 돼왔다.

옛 도로의 발달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대의 지형, 지질, 토양, 기후 등에 의하여 교통체계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중평의 옛 도로도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중평군의 지형은 음성군에 위치한 부용산에서 분기한 산맥이 정남쪽으로 뻗어 백마령 고개를 지나 보광산에 이르게 되고, 보광산에서 칠보산, 좌구산이 연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평의 북쪽에 두타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은 중평지역의 도로개척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맥의 침식으로 인하여 안부가 형성된 곳에 옛 도로가 개척 됐다.

중평지역과 그 부근의 옛 도로상의 주요 고갯길은 청주방면의 반다리고개, 능고개, 음성방면의 송오리고개와 벼루재, 괴산방면의 모래고개, 청안방면의 군방이고개와 질마재, 미원방면의 분젓치고개와 방고개, 진천방면의 지개태고개, 송터 등이다. 이 고갯길들은 모두 안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전한 영로(嶺路)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중평지역은 역사지리적으로 좌구산맥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금강 수계에 해당되며, 미호천에 의하여 형성된 넓은 미호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평야지대를 차지하려는 측과 방어하려는 측이 모두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했을 것이다<sup>20)</sup>.

따라서 삼국시대의 산성들이 미호평야의 변두리지역, 구릉지대에 분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에는 각각의 전선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도로망이 건설됐다. 이 도로들은 최전방의 군사기지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나라든지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이미 건설되어진 도로를 활용했던 것이다.

신라가 반도를 통일한 후에는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통신로로써 이를 적절히 이용했다.

고려는 개경을 왕도로 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망을 조직했다.

20) 충청대학박물관·충청북도중평출장소, 『중평이성산성』, 1997, 149쪽.

개경과 구도(舊都) 경주는 행정 및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들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였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의 도로를 대로와 소로로 나누고, 525개의 역(驛)을 22개의 역도(驛道)로 편성하여 역참을 조직했다<sup>21)</sup>.

조선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왕정국가였으므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뚜렷한 간선도로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고려의 역(驛)조직을 계승하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역참조직을 마련하게 됐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42개의 역도에 538개역으로 구성됐다<sup>22)</sup>.

조선시대 역의 설치 기준은 도로의 멀고 가까움이나 사신의 지원과 접대의 중요성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로 30리마다 한개의 역을 설치했다.

중평지역은 고려시대에 역도가 직접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충청주도(忠淸州道)의 청주(淸州) 울봉역(栗峯驛) 주변지역에 해당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좌도(忠淸左道) 울봉도(栗峯道) 소관인 시화역(時和驛)이 설치되어 운영됐다.

일제 피침 후 일본이 그들의 정책을 위하여 도로를 정비한 신작로(新作路)는 조선말기의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기존도로를 바탕으로 하여 확장, 개선한 것으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며,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도로망 분포는 조선시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21) 『고려사』 권82, 병지2, 역참조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260쪽. 『증보문헌비고』, 권126, 병고18, 역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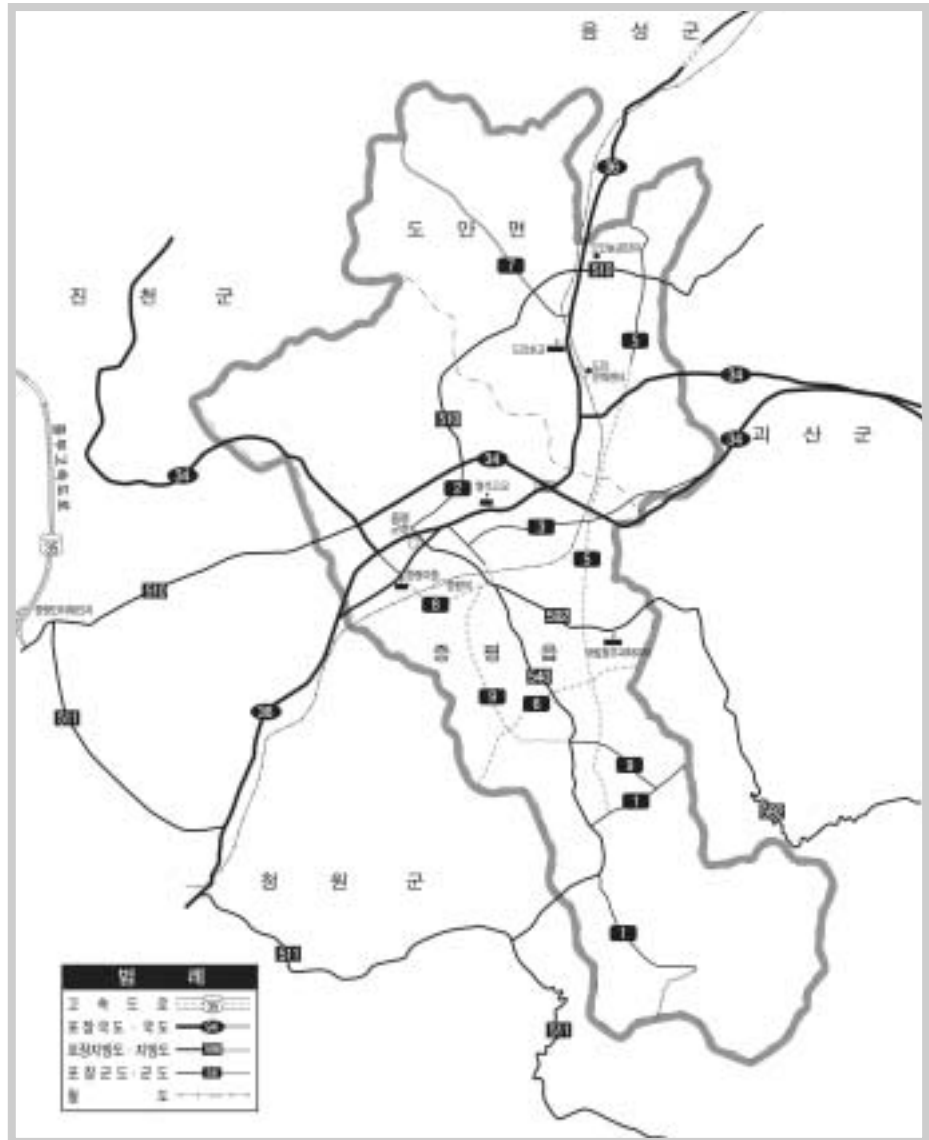
중평읍 미암리 시화마을 전경(시화역터)



한국전쟁 이후 도로망은 군사적 목적과 자동차의 급증, 산업경제의 부흥과 발달에 따라 정비·발달됐다.

현재 증평지역은 중부고속도로의 증평나들목(증평IC)이 인접해 있고, 국도 34호선과 36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증평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증평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편이다.

●● 지도 1. 증평지역의 교통로



## 2) 삼국시대 증평의 교통로

삼국시대에 증평지역은 삼국의 접경지대로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 충북의 북부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에 들게 됐는데 진천·음성·괴산·도안·연풍·충주 등이 고구려가 진출했던 지역으로 기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안은 고구려 영토로 도서현(道西縣)이라 했다. 또한 청주와 청주서쪽의 문의·조치원 등은 백제의 군현으로, 보은·황간·영동 등은 신라의 군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증평지역을 비롯한 주위 지역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까지는 삼국의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항쟁의 장이었다. 삼국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550년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신라본기 진흥왕 11년조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격전을 벌이고 있던 도살성(道薩城:증평지역)과 금현성(金峴城:전의)을 양쪽 나라의 군대가 피로한 틈을 이용해서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도살성을 고구려 도서현과 관련지어 증평 이성산성을 포함한 두타산성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sup>23)</sup>. 이때부터 증평지역은 신라에 예속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증평지역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5세기 후반경에 고구려 영역에 들게 되었으며, 6세기 중반에는 신라의 영역으로 됐던 것이다.

#### (1) 추풍령로(秋風嶺路)상의 증평지역 교통로

추풍령로는 신라의 북진로로 개척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 가운데 하나였으며, 상주에서 추풍령을 통과하여 한강유역에 이르는 도로였다. 그리고 이 교통로는 6~7세기에 신라의 군사도로로 활발히 이용됐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자비왕(慈悲王) 대에 보은의 삼년산성(三年山城)과 일모성(一牟城)을 축조하여 금강 중상류지역에 진출하고, 그 이후 소지왕(炤知王) 때부터 삼년산성을 교두보로 하여 점차 한강 유역으로 북진했다.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를 추정하면 보은(삼년산성)-미원(낭성산성-구라산성)-증평(이성산성-두타산성)-농다리-진천(도당산성-대모산성)-음성(망이산성)-안성-일죽-이천(설성산성-설봉산성)-하남-서울로 통하는 길이었다.<sup>24)</sup> 이러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가 증평지역을 경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의 삼년산성에서 북쪽으로 진출한 신라는 낭성산성에 이르게 된다. 낭성산성에서 동쪽으로는 괴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는 상당산성으로 통하고, 북쪽으로는 구라산성(謳羅山城)으로 통하는 길이 연결되고 있다.

낭성산성에서 북쪽으로 진출하면 구라산성에 이른다. 구라산성은 구녀산성(九女山城)이라고도 하며, 청원군과 북일면과 미원면 사이에 위치한 구라산에 쌓은 산성으로 신라가 보은 방면에서 진천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라산성 밑으로 안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안부에 영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고개가 분젓치고개이다. 구라산성 북쪽에는 토성리산성(土城里山城)이 있다.

토성리산성은 성내부에서 백제계 토기편과 신라계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는데, 수습되는 유물로 보아 6세기 후반경에 신라가 진출했던 것으

23) 민덕식, <고구려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1983.

24) 서영일, 『신라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92쪽.

25)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청주시 역사유적』, 1993.

26) 충청전문대박물관·충청북도증평출장소, 『증평이성산성』, 1997, 23쪽.

로 보고 있다.<sup>25)</sup>

토성리산성에서 남쪽으로 약 2km지점에 할미성이라 부르는 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성내부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주류를 이뤄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고려시대의 토기편과 기와편 등도 발견된다.

토성리산성에서 북쪽으로 진출하면 이성산성(二城山城)에 도달한다. 이성산성은 증평읍 미암리와 도안면 노암리 경계지역에 위치한 이성산에 축조된 산성이다.

이성산성은 2기의 토성(土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南城)과 북성(北城)이다. 남성은 내외겹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북성보다 규모가 크고, 북성은 남성과 같은 형태로 규모가 작다. 이성산성은 성의 형태에서 동쪽과 북쪽을 주 대향방향으로 삼은 듯하며, 성내부로 통하는 주요 통로와 수구는 모두 남쪽으로 향해서 열려 있다. 이성산성 서쪽 밑에는 시화마을이 있다.

이성산성은 축성시기를 백제의 진출에 의한 4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결성하여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는 백제의 최전방 성으로 역할을 했다고 본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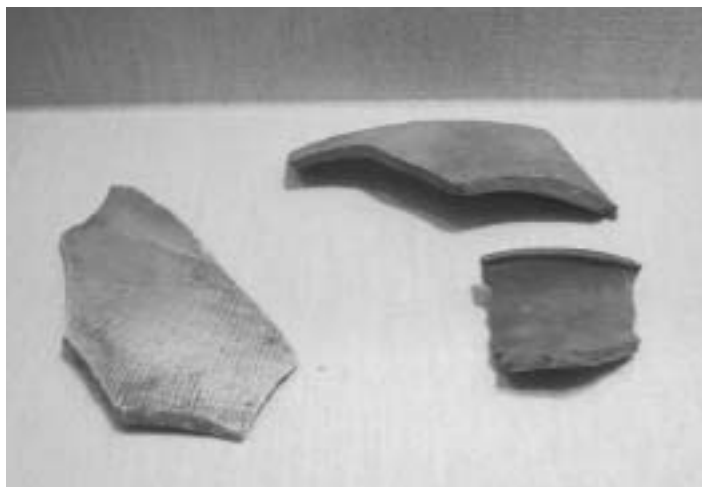
그 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는 신라에 의해 점령되고, 신라가 진출한 이후 그 서쪽으로 두타산성을 축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산성으로서의 기능이 축소·퇴화된 것이라 하겠다. 이성산성은 미호평야 주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 중 최북단에 있는 산성으로 이 평야지대를 빼앗으려는 측이나 방어하려는 측이나 모두 전략적·교통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성산성 서북쪽 약 3km지점에 두타산성이 있다. 두타산성은 도안과 증평·

진천에 걸쳐 있는 두타산에 축조된 산성으로 두타산의 8부 능선을 따라 쌓은 퇴폐식 산성이다. 두타산성이 있는 두타산 서쪽으로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에서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로 통하는 고갯길(지개테재)이 형성되어 있다.

두타산성을 지나면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농교(籠橋)라는 돌다리가 있는데 농다리라고 한다. 이 다리는 증평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라가 추풍령을 통하여 보은·삼년산성에서 증평지역을 통과하여 진천에 이르는 신라의 추풍령을 통한 북진로를 살펴보았는데, 이 교통로는 보은·삼년산성-청원·낭성산성-미원·구라산성(구녀산성)-토성리산성-증평·이성산성-두타산성-진천·농다리-진천·도당산성-대모산성-안성-이천-하남-서울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성산성 발굴토기  
(증평향토사료전시관)

## (2) 계립령로(鷄立嶺路)상의 증평지역 교통로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연결하는 고갯길인 계립령로<sup>27)</sup>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대로로 이용됐으며, 고대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로 인식되게 됐다.

계립령을 통한 교통로는 경상도에서 충주에 이르게 되고, 충주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교통로가 4~5개 노선이 있었는데, 서쪽으로 주덕·음성방면, 서북쪽으로 장호원·서울방면, 북쪽으로 제천·원주방면, 남쪽으로 문경·경상도방면 등의 교통로가 있었다. 그 가운데 서쪽방면의 교통로가 음성지역을 통과하여 증평지역을 경유하는 교통로였다고 본다.

충주의 서쪽 방면 교통로는 주덕지역의 견학리토성과 대곡리토성, 음성지역의 수정산성, 석인리산성, 오대산성으로 이어지고,<sup>28)</sup> 증평·괴산과 음성경계인 백마산에 있는 송오리 고개를 지나 증평지역의 도토성과 이성산성으로 연결되어 교통로가 개설됐다고 보는데, 이 교통로가 충주-음성-증평-청주로 이어지는 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길을 정리해 보면 계립령-충주-충주가금-주덕(견학리토성·대곡리토성)-음성(수정산성·석인리산성·오대산성)-음성원남(송오리고개)-증평(도토성·이성산성)의 노선이었다고 추정한다 (표1).

●● 표 1. 고대 증평지역 교통로

도 로 명	노 선	비 고
추풍령로	경상도 상주-보은(삼년산성)-미원(낭성산성-구라산성)-증평(이성산성-두타산성)-진천(농다리)-진천(도당산성-대모산성)-음성(망이산성)-안성-일죽-이천-하남-서울	
계립령로	계립령-충주-충주가금-주덕(견학리토성·대곡리토성)-음성(수정산성-석인리산성-오대산성)-음성(송오리현)-증평(도토성-이성산성)	이 도로는 추풍령로를 통한 신라의 충주진출로로 추정

27) 서영일은 『신라육상교통로 연구』에서 계립령로 외에 영주에서 죽령 방면을 통하여 강원도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죽령로라 하였다.

28) 서영일, 『신라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0, 212쪽

■ 굵은 글씨가 증평지역에 해당

## 3) 고려시대의 교통로

고려의 통일은 지방행정기구 정비와 더불어 교통통신망을 재정비·편성하게 되면서 역도와 간선도로망이 성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525개의 역이 분포했으며, 이 역들은 22개의 역도로 구분됐다.

증평지역은 22역도 중에서 충청주도(忠淸州道)의 관할에 있었는데, 죽산에서 분기하여 진천-청주-영동-추풍령-김천-성주-김해로 통하는 역도 상에 있었다.

충청주도의 역(驛) 중에서 증평 인근지역의 역은 청주지역의 율봉역(栗峯

29) 『고려사』, 권82, 병지2, 역  
참조

驛)·쌍수역(雙樹驛)·저산역(猪山驛)과, 진천지역의 장양역(長楊驛)과 퇴량역(堆糧驛) 등이다.<sup>29)</sup>(표 2 참조)

고려시대에 증평지역에 직접 설치된 역은 없었다. 따라서 고려시대 증평지역의 교통로는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진 교통로가 큰 변화없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고려의 간선도로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 표 2. 충청주도(忠淸州道)의 역참(驛站)

역도(驛道)	소 속 역(所 屬 驛)	역 수
충청주도 (忠淸州道)	동화·장죽·청호(수원), 가천(양성), 율봉·쌍수·저산·장지(청주), 장양·퇴량(진천), 연산·금사(연기), 포곡(전의), 성환(직산), 신은(천안), 김제(풍세), 장세(아산), 창덕(신창), 이흥(온수), 일흥(예산), 광정·일신·탄평(공주), 은산(부여), 유구(신풍), 유양(정산), 급천(이산), 홍주·광세(대흥), 금정(청양), 득웅(여미), 몽웅(정혜), 영유(가림), 비웅(홍산)	34

■ 고려사 권82 병지2 역참조

#### 4) 조선시대의 증평지역 교통로

조선시대의 도로망은 고려시대의 도로망을 계승하여 부분적으로 정비·개편하여 잘 정비된 역참조직이었다.

조선의 역제는 역의 중요도, 역로의 멀고 가까움, 사신 왕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편되고 분도화(分道化)가 실시되었으며, 조선 초기의 역로망의 모습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역로(驛路) 조직의 기초가 된 것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변경의 군정(軍情)을 중앙에 보고하는 역로망이나 봉수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조대에 이르러 역도체제는 다시 한번 대폭 개편되어 41개 역도에 538개의 역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충청좌도(忠淸左道)에는 연원도(連原道)·율봉도(栗峯道)·성환도(成歡道) 등 3개 역도에 41역이, 충청우도(忠淸右道)에는 금정도(金井道)·시흥도(時興道)·이인도(利仁道) 등 3개 역도에 24역이 설치됐다.<sup>30)</sup>

세조대에 개편된 역도체계는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경국대전』에서 전국의 역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 등으로 3구분하고 있다.

30) 『세조실록』 권29, 세조8년  
8월 5일, 정묘조

●● 표 3. 조선시대의 충청·경기도 역참조직

도(道)	역도(驛道)	속 역(屬驛)
경기	영 서 도	벽제·마산·동파·청교·산예·중연
	도 원 도	구화·백령·옥계·단조·상수
	중 립 도	경신·반유·석곡·금윤·종생·남산
	양 재 도 (영화도)	낙생·구흥·금령·좌찬·분행·무극·강복·가천·청호·장죽·동화·해문
	경 안 도 평 구 도	덕풍·양화·신진·안평·아천·오천·유춘 녹양·안기·양문·봉안·오빈·쌍수·전곡·백동·구곡·감천·연동
충청 (좌도)	연 원 도	단월·인산·감원·신평·안부·가흥·용안·황강·수(영)산 장림·영천·오사·천남·안음
	울 봉 도	<b>장양·태랑·쌍수·저산·시화·덕유·증약·가화</b> 토과·순양·화인·회동·신흥·원암·함림·전민
	성 환 도	신은·금제·광정·일신·경천·평주·유구·금사·장명·연춘
충청 (우도)	금 정 도	광시·해문·청연·세천·용곡·몽웅·하천·풍전
	시 흥 도	창덕·일흥·급천·순성·홍세·장시·화천 (이 7역은 뒤에 금정도찰방관하로 이속되고 시흥도는 없어짐.)
	이 인 도	용전·은산·유양·숙흥·람전·청화·두곡·신곡·영유

위의 역도와 역 가운데 증평지역에 설치된 역은 울봉도에 속한 시화역(時和驛)이었다. 시화역에 이어지는 역로망을 보면 장양역-태랑역-쌍수역-저산역-시화역-유덕역-증약역-가화역이다.

시화역(時和驛)은 고려시대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sup>31)</sup>, 조선시대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청안현 역원조에 “역은 한곳이며 시화역이다”라고 되어 있다.<sup>32)</sup>

시화역은 당시 증평지역의 유일한 역이었다. 시화역의 위치는 청안현에 속해 있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호서읍지』 등에 “시화역은 청안현 서쪽 17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3)</sup>

따라서 시화역의 위치를 오늘날 증평읍 미암리 시화마을로 비정할 수 있는데, 시화라는 마을명이 시화역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구총수』에<sup>34)</sup> 청안현 근서면(현:증평읍지역)에 시화상리와 시화하리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평읍 미암2리가 시화마을로 불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시화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옛 지도인 1872년에 제작된 『청안현지도』에는 “청안현에서 서쪽으로 17리 떨어져 있고 울봉역에 속해 있다”<sup>35)</sup>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음은 시화역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시화역은 세조6년(1460년) 병조에서 전국의 역을 정비할 때 “병조에서 아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권,  
261쪽에서 인용

31) 차용걸, 『충북향토문화』  
2집, 〈울봉역에 소속된  
제역과 교통로〉, 1990, 45  
쪽

32) 『세종실록지리지』, 청안  
현 역원조, “驛一時和”

33) 『신증동국여지승람』, 청  
안현 역원조, “時和驛 在  
縣西十七里”.

『여지도서』 청안현 역원  
조, “時和驛 在縣西十七  
里 屬栗峯驛”

그러나 『대동지지』 청안현  
역참조에는, “時和驛 西十  
五里”라고 하여 서쪽 15  
리로 기록되어 있다.

34) 1789년(정조13)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

35) 『청안현지도』, 1872, 규장  
각소장(규10384), “時和  
驛 自官西距十七里 栗峯  
驛所屬”이라 기록

36) 『세조실록』, 권19, 세조 6  
년2월5일 임자조

기를 여러 도의 여러 역에 역승을 없애고 찰방을 두고서 혹은 한 도, 두 도, 세 도, 네 도를 아울러서 하나의 도로 했으나, 역로(驛路)가 너무 멀어서 때때로 순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는 자가 한 도라고 생각하여 원근을 헤아리지 않고 수일정을 달려서 지나가다가 인마가 곤폐하여지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경기 외 하삼도 여러 역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도를 나누소서……(중략)……충청도 울봉도의 소관인 청주의 울봉역·쌍수역·저산역, 진천현의 태랑역·장양역, 문의현의 덕유역, **청안현의 시화역**과, 연원도의 소관인 충주의 연원역·단월역, 연풍현의 안부역·신평역, 음성현의 용안역·감원역, 괴산군의 인산역과, 황강도의 소관인 청풍군의 황강역·수산역·안음역, 영춘현의 오사역, 제천현의 천남역 총 27역을 합하여 한 도로 하고 울봉도라 칭하여 경기·충청우도 찰방으로써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sup>36)</sup>라고 하여 시화역이 울봉도에 소속되게 됐다.

그리고 세조 8년(1462년) 병조에서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로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둘 때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여러 도의 참·역(站驛) 혹은 역승(驛丞)을 파(罷)하고 각각 그 부근에 합하여 하나의 길(道)을 만들어서 찰방(察訪)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驛)이 많고 길이 멀리 떨어져서 찰방이 두루 살피기가 어려우므로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니, 이제 다시 마감(磨勘)하여 대(大)·중(中)·소(小)의 역로 및 원근(遠近)을 나누어서 그 전의 역승을 각 역로에 차견(差遣)하여 1찰방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뒤에 갖추 아뢰입니다. 충청도 연원역(連原驛)·단월역(丹月驛)·황강역(黃江驛)·수산역(水山驛)·안음역(安陰驛)·안부역(安富驛)·신평역(新豐驛)·인산역(仁山驛)·감원역(坎原驛)·용안역(用安驛)·장림역(長林驛)·영천역(靈泉驛)·오사호역(吾賜乎驛)·천남역(泉南驛) 이상 14역은 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으로 일컫고, 울봉역(栗峯驛)·쌍수역(雙樹驛)·저산역(猪山驛)·장양역(長楊驛)·태랑역(台郎驛)·**시화역(時和驛)**·증약역(曾若驛)·가화역(嘉禾驛)·토파역(土破驛)·순양역(順陽驛)·화인역(化仁驛)·전민역(田民驛)·덕유역(德留驛)·회동역(會洞驛)·신흥역(新興驛)·함림역(含林驛)·원암역(原巖驛) 이상 17역은 울봉도찰방(栗峯道察訪)으로 일컫고, ……(이하생략)”라고 하여<sup>37)</sup>, 1찰방 1역승제도에 의해 시화역은 울봉도찰방의 관할역이 됐다.

시화역과 연결된 역로망은 (지도 2)와 같다.

37) 『세조실록』, 권19, 세조 6  
년2월5일 임자조

시화역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릉도의 17개역은 중로(中路)의 10개역과, 소로(小路)의 7개역이었는데, 시화역은 저산(청주), 순양(옥천), 화인(옥천)·원암(보은)·함림(보은)·전민(회덕)역과 함께 소로에 해당하는 역으로 소역(小驛)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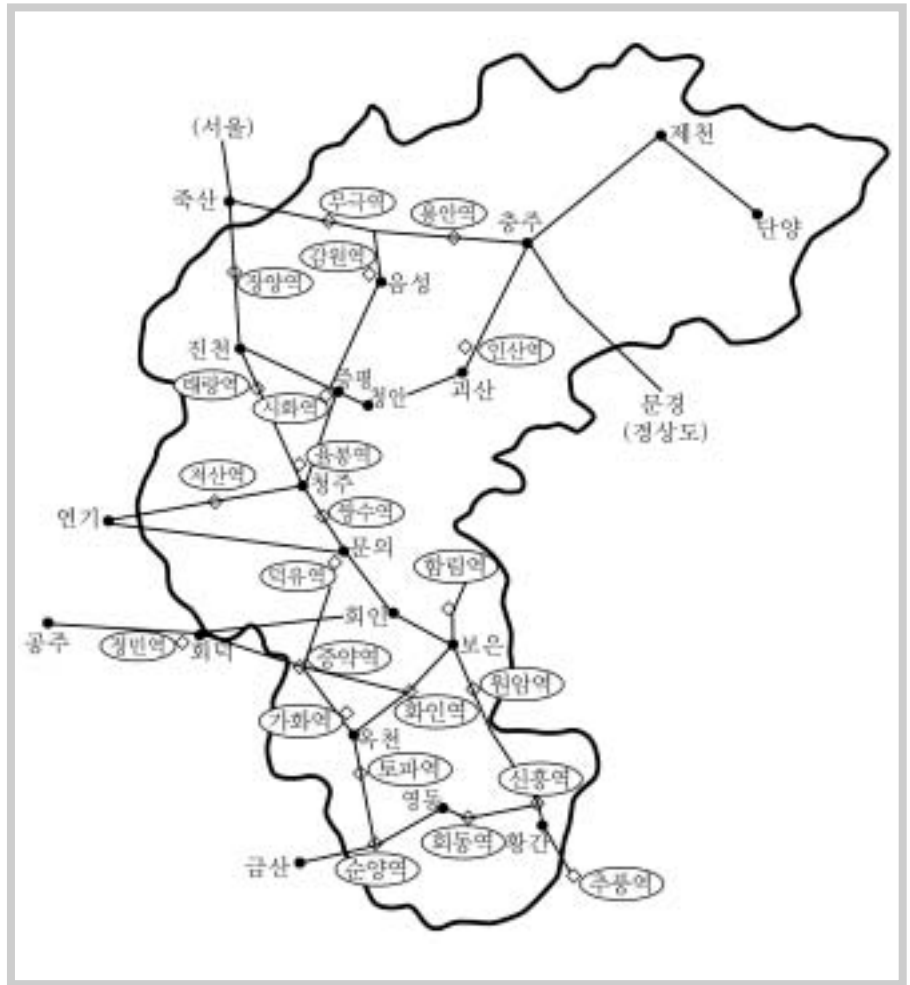
『반계수록』에 따르면 소역에는 15~45의 역호(驛戶)와 4~12마리의 말이 배치되고, 공수전(公須田)은 소로역(小路驛)에 해당하는 5결, 역장전(驛長田)은 2결, 부역장전(副驛長田)은 1.5결, 급주전(急走田) 3.5결, 역리전(驛吏田) 45결, 마전(馬田) 63결 등 최대한 116결의 역토(驛土)가 지급되도록 규정됐다.<sup>38)</sup>

그러나 시화역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등에 위치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소역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산역에는 상등마 1필, 중등마 4필, 하등마 5필이 배치되고, 역노비가 17명 정도였으며, 순양역에는 상등마 1필, 중등마 2필, 하등마 7필이 배치되고, 여노비가 5명이었으며, 화인역에는 하등마 9필이 배치됐으며, 원암역에는 상등마 1필, 중등마 4필, 하등마 5필이 배치되고, 역노비가 15명이었다. 함림역에는 상등마 2필, 중등마 3필, 하등마 5필, 역노비가 40명이었으며, 전민역에는 상등마 1필, 중등마 4필, 하등마 3필이 배치됐다.<sup>39)</sup>

따라서 시화역에는 상등마 1~2필, 중등마 3~4필, 하등마 5필 정도가 배치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조선시대 전국도로망은 『경국대전』에서 전국역로망체제가 확립되면서 전국의 9대 간선로가 확정되게 됐는데,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시대의 주요도

●● 지도 2. 충북지역의 역로망



38) 유형원, 『반계수록』, 권 22, 병제추록, 참역조

39) 『여지도서』 목(牧), 군현(郡縣)의 역원조 참조



40) 『증보문헌비고』, 권24, 여지고 12, 도리조

41) 『증보문헌비고』, 권24, 여지고 12, 도리조

42) 『여지도서』, 충청도 청주목 도로조, “栗峯小路距栗峯驛七里距 淸安縣帶水里界四十二里”

43) 조선시대 도로의 등급은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大·中·小로 구분되었다.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로는 大路, 그 밖의 지방도로는 中·小路에 속하였다. 그리고 路幅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驛에 배치된 驛戶와 驛馬의 數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또한 옛 도로를 기록한 문헌에 大路, 小路라 구분한 것은 위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은 大路, 좁은 길은 小路라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 옛날 邑誌나 地圖에서 大路라 한 것은 그 고을의 “한길” 정도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외방도로의 등급 분류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다.

44) 『여지도서』, 충청도 괴산현 도로조, “南距淸安縣界沙峴大路三十八里”

45) 위책, 충청도 음성현 도로조, “南松五里峴二十里大路”

46) 위책, 충청도 진천현 도로조, “東南間小路由德文草坪干淸安泮灘自官門二十五里”

로망과 그 리수(里數)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방(四方)의 가장 긴요한 9대로(大路)를 정하고 있다.<sup>40)</sup>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9대로를 살펴보면, 제1로는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의주에 이르는 길, 제2로는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경흥의 서수라에 이르는 길, 제3로는 서울에서 동쪽으로 평해에 이르는 길, 제4로는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부산에 이르는 길, 제5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통영에 이르는 길, 제6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통영에 곧장 이르는 길, 제7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제주에 이르는 길, 제8로는 서울에서 서남쪽으로 충청수영에 이르는 길, 제9로는 서울에서 서쪽으로 강화에 이르는 길이다.

증평지역은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제4로인 한양에서 음성의 북부지역을 거쳐 충주를 지나 경상도 동래까지 연결되는 영남대로의 지선도로 중에서 음성에서 청안현까지 연결되는 도로선상에 증평지역이 있었는데,<sup>41)</sup> “석원(石院)에서 남쪽으로 음성에 이르는 길 45리, 오촌(午村:음성지역)에서 남쪽으로 청안(淸安)에 이르는 길 40리이다”라고 했다. 그 노선을 보면 영남대로에서 지선도로를 통하여 음성을 거쳐 괴산, 연풍에 이르는 길로 이어지다 양혜원(현:음성 하당)에서 분기하여 오촌-송오리현-청안현에 이르는 길이다.

이와 같이 증평지역의 도로는 조선시대 간선도로 구간이 아니라 간선도로 제4로인 영남대로에 연결된 지선도로였다.

#### (1)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대)의 증평지역 교통로

『여지도서』에 나타난 증평지역의 옛 교통로는 4개의 도로가 기록되어 있다.

첫째, 청주와 연결되는 울봉소로<sup>42)</sup>가 있는데, 청주관문에서 울봉역까지 7리이고, 청안현 대수리(帶水里) 경계까지 42리라 했다. 이 울봉소로<sup>43)</sup>를 통하여 청안현에 다다르고, 청안현에서 시화역과 음성현, 괴산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괴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사현대로(沙峴大路)<sup>44)</sup>가 있는데, 괴산현 관문에서 남쪽으로 청안현과 경계한 사현대로가 38리라고 했다. 이 사현대로를 통하여 증평지역에서 사리면을 지나 괴산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음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송오리현대로(松五里峴大路)<sup>45)</sup>가 있는데, 음성현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에 송오리현대로가 있으며 청안현과 경계라 했다. 이 송오리현대로를 통하여 음성에서 증평지역의 시화역과 청안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넷째, 진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진천현 동남간소로(東南間小路)<sup>46)</sup>가 있는데, 진천현 덕문령에서 시작하여 반탄천에 이른다고 했다.

## (2)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1년대)의 증평지역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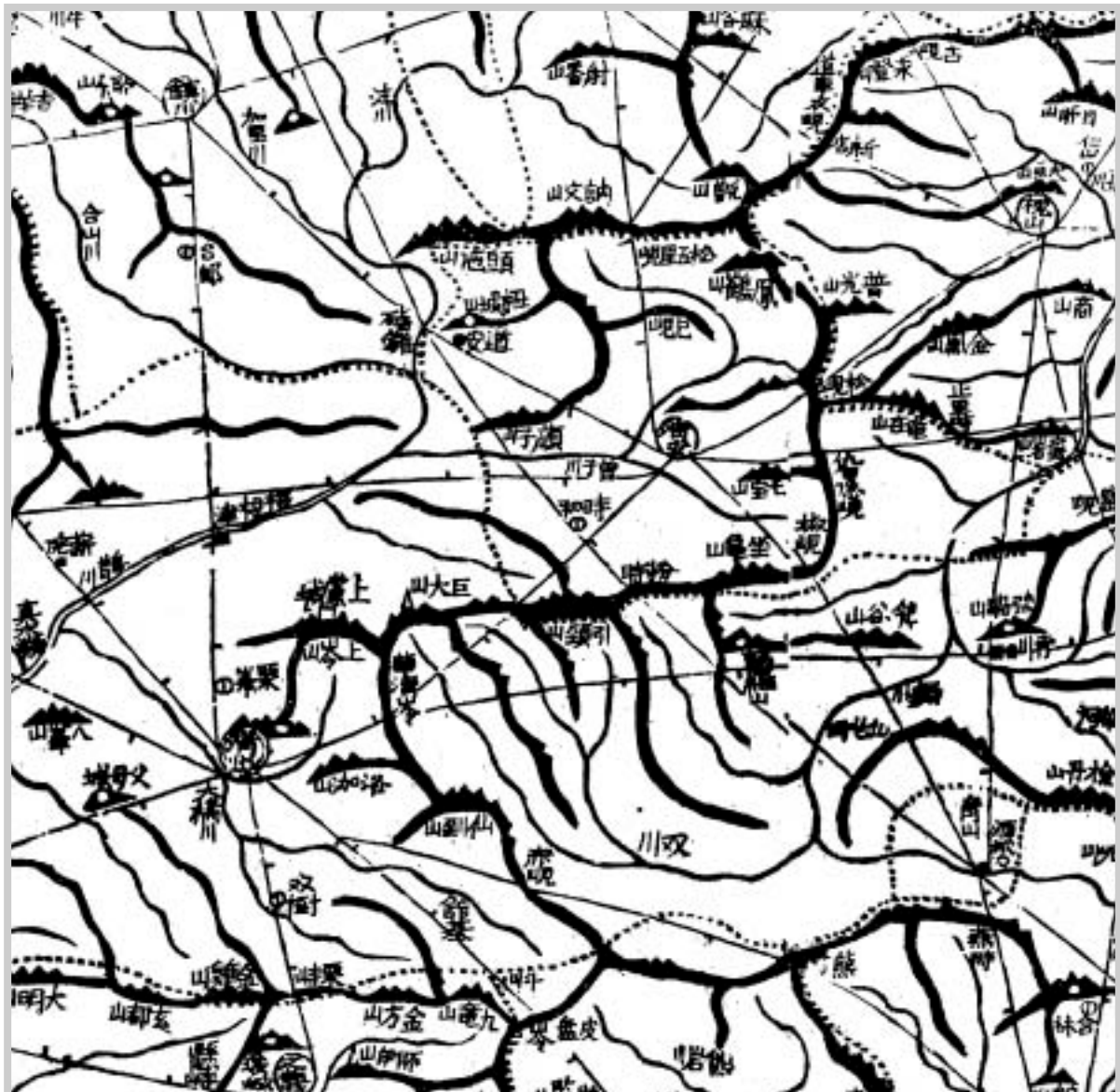
『대동여지도』<sup>47)</sup>에 나타난 증평지역의 옛 도로를 보면 청주, 음성, 진천, 청안, 죽산방면 등 5개 노선이 표기되어 있다.

첫째, 청주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시화역을 통하여 청령(淸嶺)을 지나 울봉, 청주로 연결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에는 시화역과 울봉역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청안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증평지역이 청안현에 속해 있었으므로 청안에서 음성·진천·죽산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증평지역을 경유했다고 본다.

47) 김정호, 『대동여지도』,  
匡祐堂復刊, 1985

## ●● 지도 3. (청구전도(김정호,1861)의 증평부근 교통로



셋째, 음성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증평지역에서 도안현 위치로 직접 통과하지 않고 사리면 지역을 경유하여 사현(巳峴)-송오리현-원남(음성)-오촌(음성)-음성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넷째, 진천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청안-시화역-도안-반탄천 독방길로 이어지는 길이다.

다섯째, 죽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증평지역에서 진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반탄에서 갈라져서 두타산 밑으로 하여 죽산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 (3) 청안현지도(淸安縣地圖 : 1870년대)의 증평지역 교통로

48) 『청안현지도』, 1872, 규장각소장(규10384)

조선후기 『청안현지도』<sup>48)</sup>에 나타난 증평지역의 도로를 보면 첫째, 청주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2개의 노선이 있는데 증천리(曾川里)의 증천점(曾川店)부터 송리현(松里峴)-청안현치지(淸安縣治地)-오리정감영통로를 따라 거거현(擧矩峴)-금수현(金水峴)-장천점(長川店)-초정현(椒井峴)-청주목방면으로 이어지는 길과, 또 하나의 다른 노선은 증천점(曾川店)-구암리(九巖里)-구승탄점(九昇灘店)-구승호교(九昇湖橋)-청주 오근진(梧根津)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둘째, 미원(米院)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영남지방으로 통하는 도로를 이용하였는데, 증천점-포천점(浦川店)-대수리점(大樹里店)-청안현 남차리·원평리-삼기점(三岐店)-분치(분저치:粉峙)-미원-보은-상주-영남지방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셋째, 진천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증천점-반탄천(潘灘川)-반탄점(潘灘店)-탑선점(塔仙店)-진천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넷째, 괴산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증천점-송리현-청안현치지 입구-북수(北藪)-구수고개-사치(沙峙)-괴산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다섯째, 음성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괴산방면의 도로와 같은 노선으로 연결되다가 방축리에서 갈라져 송오리현(松五里峴)을 통하여 음성과 연결되는 길이다.

위와 같이 청안현지도에 나타난 증평지역의 도로를 살펴보았는데 이 당시 도로노선망은 근대도로의 근간이 되어졌다고 본다.

### 4) 일제시대~근대의 증평지역 교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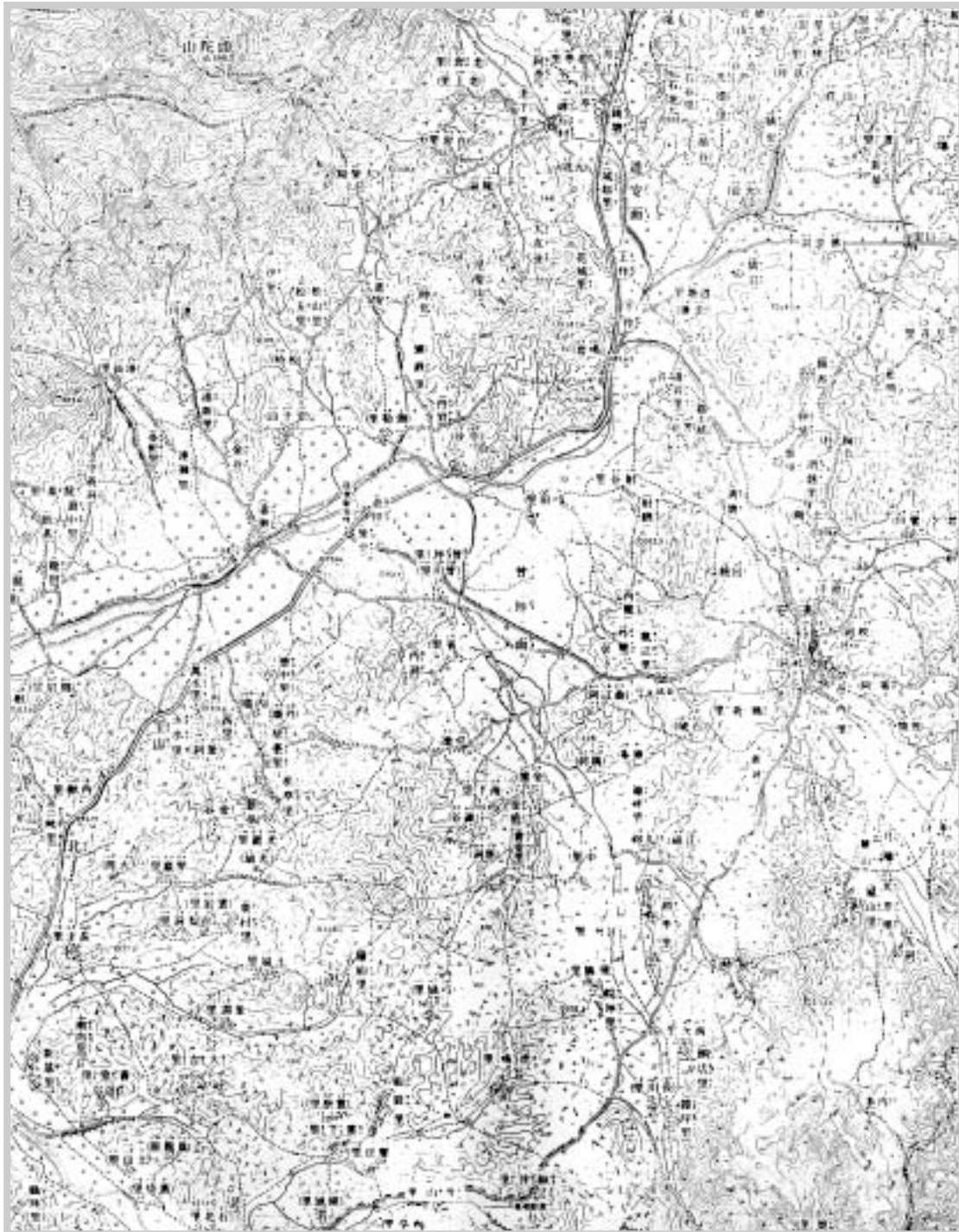
일제의 침략 이후 도로는 일제의 정책을 위하여 정비되었는데 신작로(新作路)라 불렸으며, 대동여지도와 각 군현지도에 나타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장, 개선한 것으로 조선말기의 도로망 분포와 큰 차이가 없다.

일제시대의 도로망은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에서 1914~1918년에 제작 발간한 『한국 5만분지1 지형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형도에는 증평지역

의 간선도로, 지선도로, 달로, 연로, 간로, 소로 등을 나타냈으며, 도로의 등급을 표기했다.

중평지역의 도로를 보면 간선도로로 2등 도로인 공주(청주 경유)―충주간 도로가 중평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경유했는데, 이때부터 청주에서 청안을 경

●● 지도 5. 일제시대 한국 5만분지 1 지형도의 중평지역 교통로



49) 『한국 5만분의 1지형도』 지도에서 표기된 도로는 1등도로, 2등도로, 달로(達路), 연로(聯路), 간로(間路), 소로(小路)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유하지 않고 직접 증평을 경유하여 음성, 충주, 괴산, 진천으로 통했다.

또한 달로(達路)<sup>49)</sup>로 청안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괴산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으며, 연로(聯路)로는 진천과 연결되는 도로와 도안으로 우회하여 이어지는 도로와, 음성과 증평을 이어주던 도로 등이 있었다.

증평에서 각각의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방면 길은 2등도로로 증평면 증평리(장평)－초중리－옥수리(만수·옥수)－내추리－장재리－현암리－신대리－삼봉리－내수리－원통리－청주로 연결됐다.

둘째, 충주방면 길은 2등 도로로 증평면 증평리(장평)－사평－명암－화성리 하작－성도리－송정리－백마령－음성－충주로 연결됐다. 또한 음성으로 연결되는 연로(聯路)가 있는데, 충주방면 길과 같은 노선으로 이어지다, 하작에서 분기하여 도당리－불당동－사담리－노송리－송오리현－음성원남－음성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그런데 이 도로는 조선시대의 간선도로에 해당됐다.

셋째, 괴산방면 길은 달로(達路)로 충주방면과 같은 노선으로 이어지다가 하작에서 분기하여 도당리－불당동－사담리 삼거리－사현(모래고개:沙峴)－수암리－회촌－덕현－괴산으로 연결됐다.

넷째, 청안방면과 청안을 경유하여 청주로 연결되는 도로는 달로(達路)로서 증평면 증평리에서 용강리 곡강동(曲江洞)을 지나 청안으로 연결됐으며, 청안에서 청주로 연결되는 노선은 금신리－신동－연정리－원평리－장천리－초정고개－초정리－우산리－세교리－도원리를 지나 원통리에서 증평, 청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나서 청주로 연결됐다.

다섯째, 진천방면 도로는 간로(間路)로 증평면 증평리－초중－반탄－연탄리－탑선리－오창면 노은리－진천 죽정리－진천으로 연결됐다.

## 5) 현대의 증평지역 교통로

한국전쟁 이후 도로망은 군사적 목적, 산업경제의 발달,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로가 확장, 정비되거나, 연장됐으며, 증평지역 도로도 급속히 발달하게 된다. 1987년 12월에 완공된 중부고속도로가 증평지역 인근을 통과하고 증평나들목(증평IC)이 설치됐으며, 오늘날 34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됐다.

위와 같이 증평지역 교통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증평 인근으로 통과하고, 34번 국도(충주-청주)와 36번 국도(증평-괴산)가 교차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 2. 철도교통

한국의 철도는 일본의 대륙침략 수단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여 일제의 식민지배와 자본주의 침투, 상품판매와 상품 원료 및 식량 약탈을 위하여 건설됐다.

조치원-제천 봉양간 충북선 철도가 건설되고, 이 철도가 증평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평지역은 행정구역상 괴산군에 속하였으나, 군소재지가 아니면서도 괴산군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충북선 철도의 부설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증평을 경유하는 철도는 증평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 1) 조치원-청안구간의 충북선 부설

충북지역에 철도를 부설하지는 논의는 1913년경에 이루어졌다.

1917년 8월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경편철도주식회사의 부설 계획안에 의해 충북선 철도의 부설이 조치원-청주-충주노선으로 확정됐다.<sup>50)</sup>

그러나 조선중앙철도회사<sup>51)</sup>는 1920년 3월에 자본금 1,200만원으로 조치원-청주간 22.7km에 이르는 공사를 착수하여 1921년 11월 1일 조치원에서 청주에 이르는 충북선을 개통했다.

그리고 1922년 5월부터는 청주-청안간 23.9km에 이르는 공사가 착공됐고, 1923년 5월 1일 청주-청안간이 개통됐고, 청안역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조치원-청안간의 철도부설로 1단계 충북선 철도 부설은 완료됐고, 청주-청안구간은 개통 당시 하루 4회 왕복했으며, 1927년에는 5회 왕복했다.

충북선은 사설철도로서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에서 부설했으나, 1923년부터는 조선철도주식회사<sup>52)</sup>가 충북선을 경영했다.

이렇게 개통된 충북선은 궤간 4자8촌반의 증기철도로써, 사설철도법에 따라 레일의 중량은 3피트에 약 27kg, 침목은 길이가 8자, 폭은 9촌, 두께는 6촌이며, 최급구배는 60분의 1, 최소 곡선반경은 약 300m, 교량은 다듬돌쌓기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교대·교각 등으로 설계됐다.<sup>53)</sup>

충북선 개통 당시 충북선에 부설된 역은 조치원·오송·월곡·정봉·송정·청주·정하·오근장·내수·청안역 등 모두 10개 역이 있었다.

청안역은 괴산군 증평면 증평리에 위치해 있었다. 주요물산은 쌀, 콩, 연초, 누에고치, 면화 등으로 주로 인천, 군산, 서울, 부산 등으로 직송됐다. 역 중업

50) 大態春峰(정삼철 역), 『청주연혁지(1923)』, 청주시, 1999, 66쪽

51) 조선경편철도주식회사는 1919년 9월에 조선중앙철도회사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다.

52) 경제불황으로 경영난에 이른 일본철도당국이 사설철도 회사의 병합을 유도하여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 등 6개의 철도회사가 조선철도주식회사로 병합하였다.

5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편, 『朝鮮の私設鐵道』, 1925, 105쪽.

54) 龜岡榮吉・砂田辰一, 『朝鮮鐵道沿線要覽』, 1927, 880-889쪽.

원은 모두 15명이었고, 역구내에 급수소, 매점 등이 있었다.<sup>54)</sup> 중평장(1·6일장)이 열려 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상인들의 이동 등으로 철도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청안역은 역이 개설된 이후 급격히 발달했으며, 따라서 중평에 면사무소, 우편소, 주재소, 미곡검사소, 연초수납장, 금융조합 등이 설립됐다.

충북선 개통 이후 조치원-청안간 충북선 철도운행은 철도부설 이후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부상했다. 조치원-청안구간은 청주를 중심으로 여객과 화물의 발착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북부지역의 여객과 화물의 집산지인 청안이 충북선의 중심역이었다.

충북선 개통 이후 각 역의 수송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4〉참조

●● 표 4. 충북선 각 역(驛)의 수송 현황(1926)

읍·면	여 객(명)			화 물(톤)	
	발	착	계	발	착
조 치 원	3,498	29,129	32,627	10,885	502
오 송	8,752	10,410	19,162		
월 곡	9,158	8,903	18,061		
정 봉	12,662	10,928	23,590	123	80
송 정	5,966	6,590	12,556		
청 주	100,114	90,131	190,245	13,762	14,349
정 하	9,788	10,728	20,516	3	
오 근 장	14,990	14,888	29,878	168	151
내 수	24,076	21,775	45,851	3,422	422
청 안(중평)	49,064	47,103	96,167	14,232	13,036

충북선의 중심은 청주역이었다. 충북선 각 역에서 출발하는 승객과 조치원과 청안에서 출발한 승객은 대부분 청주로 도착하고, 반대로 청주역에서 승차한 승객은 80% 정도가 조치원과 청안역에 도착해 각지로 흩어지는 인구이동이 있었다.

충북선 화물은 〈표 5〉와 같이 조치원-청주-청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화물량은 발착이 비슷한 수준으로, 충북선을 통해 청주와 청안으로 이송되는 화물은 〈표 6〉과 같이 만주선을 통하여 조, 인천으로부터는 소금이 들어왔다. 반면에 충북도내에서 반출되는 화물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들 농산물은 인천이나 부산 등지로 실려나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곧 충북선이 일제의 농산물 수탈통로로 활용된 것이다.<sup>55)</sup>

■ 龜岡榮吉・砂田辰一, 『朝鮮鐵道沿線要覽』, 1927, 880-889쪽.  
김양식·강민식,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 방안 연구』, 2004, 11쪽 재인용

55) 김양식·강민식,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 방안 연구』, 충북개발연구원, 2004, 13쪽

● ● 표 5. 1924년 1-6월 충북선 수송 현황

읍·면	여 객(명)		화 물(톤)	
	발	착	발	착
조치원	18,868	18,162	3,434	2,328
오 송	2,271	2,620		
월 곡	3,571	3,479		
정 봉	4,443	4,471	130	388
송 정	1,823	2,365		
청 주	50,451	50,716	9,467	9,548
정 하	1,208	1,808	3	
오근장	5,616	5,842	38	51
내 수	8,882	8,524	1,642	253
청 안	14,573	13,975	6,015	5,597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編『朝鮮の私設鐵道』, 1925, 71-72쪽  
 김양식·강민식,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 방안 연구』, 2004, 14쪽 재인용

● ● 표 6. 1924년 1-6월 충북선 주요 화물

품 명	주요발역	주요도착지	수량(톤)	계
유출화물	쌀	청주·청안	인천	7,994
	벼	청주·청안	인천	1,220
	연초	청주·청안	서울	2,331
	석재	내수	조치원	1,234
유입화물	조	만주선 주요역	청주·청안	3,268
	소금	경인선 주안	청주·청안	2,920
기 타			10,723	10,723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 調査課 編『朝鮮の私設鐵道』, 1925, 72쪽.

## 2) 청안—충주구간 충북선 부설

충북선의 청안-충주구간은 이미 1917년에 조치원-충주구간 사설철도 부설 면허권을 취득해 놓은 상태에서 미개설선으로 남아 있던 구간이다.

조선철도주식회사는 1926년 12월에는 제1공구 청안-음성구간이, 다음해 3월에는 제2공구 음성-대소원구간과 대소원-충주구간이 각각 기공됐다. 그 후 1928년 12월 25일 충주역에서 청안-충주구간의 개통식이 거행됐다. 이로써 1917년 철도부설이 허가된 조치원-충주간 91.7km에 이르는 충북선은 완전 개통되었다.

## 3) 충주—제천구간 충북선 부설

충주에서 제천까지의 충북선 연장문제는 충북선을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56) 『매일신보』, 1940. 2. 1

중부조선의 횡단철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오지의 물자 수송을 통한 지역개발과 산업 진흥을 꾀하고자<sup>56)</sup> 추진됐다.

한국전쟁 전후에 건설된 철도는 모두 산업개발과 경제부흥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철도로 부설됐으며, 1941년 7월 1일 제천-원주간 중앙선 철도 개통과 1949년 10월 15일 영월선 개통으로 제천역은 주요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충북선 연장공사는 충주에서 봉양에 이르는 35.2km는 1958년 12월 31일 완공되고 1959년 1월 10일 제천까지 충북선 전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 4) 증평역

증평역은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64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증평역은 1923년 12월 25일 보통역인 청안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는데, 조치원-청안구간이 개통되면서 증평역이라 불리지 않고 청안역이라 했다. 이 때의 역 위치는 현 증평군청 바로 앞 도로였다. 이는 증평지역이 조선시대 청안현(군)에 속해 있었으며, 또한 당시에 증평이 신청안이라고 불리워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1945년 10월 1일 청안역을 증평역으로 개칭했다. 1967년 4월 7일 역사를 증축했고, 동년 7월 27일 역사를 준공했다. 1973년 2월 26일 사무관역으로 승격했으나, 1978년 2월 24일 주사역으로 격하했다. 1979년 10월 10일 충북선 복선화로 역사 이전 공사를 시작하여, 1980년 9월 10일 현위치(증평읍 신동리 640번지)로 이전 준공했다.

2000년 1월 1일 대전지역 관리역으로 직제를 개편했고, 현재 보통역으로 하루 상하행 왕복 8회 승하차가 가능하다.

충북선이 부설되고 증평역이 들어선 이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26년 청안역(현:증평역) 이용 승객은 승차인원 49,064명, 하차인원 47,103명으로 총 96,167명이다.<sup>57)</sup>

1927년 이용승객은 승차인원 86,640명, 하차인원 75,160으로 총 161,8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sup>58)</sup>

그 후 증평역을 이용한 승객은 『충북통계연보』에 의하면 1963년에 451,536명, 1965년에 308,613명이며, 1966년에는 590,555명으로 증평역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해였다.

57) 청주시, 『청주도시계획변천사』, 1994, 651쪽에서 재인용

58) 충청북도편(정삼철역), 『충청북도요람(1928)』, 1996, 16쪽



증평역 전경

그 이후 1970년에 286,588명으로 크게 감소하게 됐으며, 1975년에 290,120명, 1980년대 273,537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증평역이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벗어나 위치하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151,215명, 1990년에는 154,692명, 1995년에는 108,218명, 2000년에는 106,985명이 이용하였다. 2003년에는 46,907명으로 이용 승객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증평역 전경

증평역의 개설은 증평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증평지역에는 5일장으로 반탄장(현:증평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충북선 부설에 따른 증평역이 개설되기 전인 1917년 반탄장의 시장거래 금액은 1,440円으로 괴산군내 5일장이 열리던 7곳의 장 가운데 다섯번째에 불과하여 괴산장의 약 60분의 1, 청안장의 약 40분의 1의 규모였다. 당시 괴산장의 거래금액은 81,026円, 청안장의 거래금액은 57,200円이었다. 그러나 충북선이 부설되고 증평역이 개설된 후 1930년대 중반에는 반탄장의 거래금액이 1,256,803円으로 청주장 다음으로 많았다.<sup>59)</sup>

충북선 부설과 증평역 개설은 한국철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 대륙침략을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역기능을 했지만, 증평지역에서는 이러한 역기능 이외에도 증평도시의 형성과 산업경제에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본다.

59) 증평문화원, 증평향토문화 연구회, 『증평문화』, 2004, 211-212쪽에서 인용

## 5) 도안역

도안역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60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치원-충주간 충북선이 1928년 12월 25일 개통되어 도안을 경유하면서 도안역이 개설되었다. 당시는 보통역으로 설치되지 않고 화물만 취급하는 역이었다.

도안역은 1960년 12월 2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도안역 전경

60) 도안면지발간위원회,  
『도안면지』, 2001, 511쪽

1961년 역무원이 배치된 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가 1965년 12월 1일 다시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1979년 12월 31일 충북선 복선화로 역사(驛舍)를 신축 착공하여 1980년 10월 12일 준공했다. 1980년 10월 10일 충북선이 복선 개통했다. 1993년 4월 15일 비둘기호 취급역, 차내 취급 지정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도안역에는 1995년 1월 18일 동양시멘트양회 사이로 도안공장이 준공됐다.<sup>60)</sup>

한편, 1995년 8월 25일 수해로 청안천 철도교량이 유실됐으며, 1996년 7월 3일 청안천 철도교량을 완공 개통했다. 1996년 8월 6일 성도리 건널목 지하도 공사를 완공했으며, 1997년 8월 11일 역광장 포장 및 10월 15일 역광장에 소공원을 조성했다.



도안역 철로

도안역은 2004년 현재 보통역으로 하루 상하행선 왕복 2회 승하차가 가능하다.

도안역은 도안면 전지역과 도안면 인근의 괴산군 사리면 일부지역, 청안면 일부지역, 음성군 원남면 백마령 이남지역 등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다.

도안역을 이용한 승객현황을 보면, 1969년에는 151,335명, 1978년에는 136,062명이 이용했으나, 1980년에 57,670명, 1985년에 14,82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0년에는 5,982

명, 1995년에 938명, 2000년에 1,223명, 2003년에 685명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다.

### 3. 통 신

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과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급격하게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옛날의 통신수단으로서 봉수(烽燧), 우역(郵驛), 파발(擺撥)이 있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통신사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통신사업은 조선 말기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기우편제는 갑오경장(1894년) 이후 부산에 일본 거류민 전용의 우편국이 생긴 것이 처음이고, 전신(電信)사업은 1883년 부산과 일본의 나가사키 간에 해저전신(海底電信)이 부설된 것이 처음이다. 또한 전화는 1902년 서울과 인천사이에 교환사

무가 시작된 것이 처음이다.

오늘날의 통신은 정보통신 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동전화와 개인용 컴퓨터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어 해마다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 1) 근대이전의 통신

### (1) 봉수(烽燧)

봉수는 전근대적인 국가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써 변경의 급한 소식을 중앙이나 변경의 다른 기지, 해당지방의 주민들에게 밤에는 횃불(烽: 峰), 낮에는 연기(수: 燧)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봉수를 봉화(烽火)·낭화(狼火)·낭연(狼煙)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봉수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봉수에 대해서는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사』에 기록된 봉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의종(毅宗) 3년(1149)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인 조진약(曹晋若)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화식 즉 거화법(擧火法)을 정했는데, 평상시에는 불이나 연기를 하나만 올리고, 조금 급한 상황 즉 2급(急)에서는 둘, 다급한 상황 즉 3급(急)이면 셋, 가장 급한 상황 즉 4급(急)이면 넷을 올렸다. 그리고 모든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 배치하되 각기 평전(平田) 1결씩 주도록 했다고 한다.<sup>61)</sup>

위의 기록으로 고려에서는 12세기 중엽에 봉수제가 어느 정도 확립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봉수로에 대해서는 봉수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대에 봉수로(烽燧路), 거화법(擧火法), 봉화대 시설기준, 봉군(峰軍)의 신분·생활 등에 대하여 정비하게 됐으며, 성종대에 『경국대전』을 통해 봉수제를 확립하게 된다.

조선시대 봉수 운영을 보면 중앙에서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관장하였고, 지방에서는 군사책임자인 관찰사(觀察使), 수령(守令), 병사(兵使), 수사(水使), 도절제사(都節制使), 순찰사(巡察使) 등이 임무를 맡았으며, 봉수대에는 봉수군과 오장(伍長)이 배치되어 이상유무를 보고 했다.<sup>62)</sup>

조선시대 전국의 봉수대에 대하여 문헌에서 확인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에 549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738개소, 『여지도서』에 518개소, 『대동지지』에 510개소, 『증보문헌비고』에 610개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거화법(擧火法)을 보면 5가지 방법으로 구분했다. 육지(내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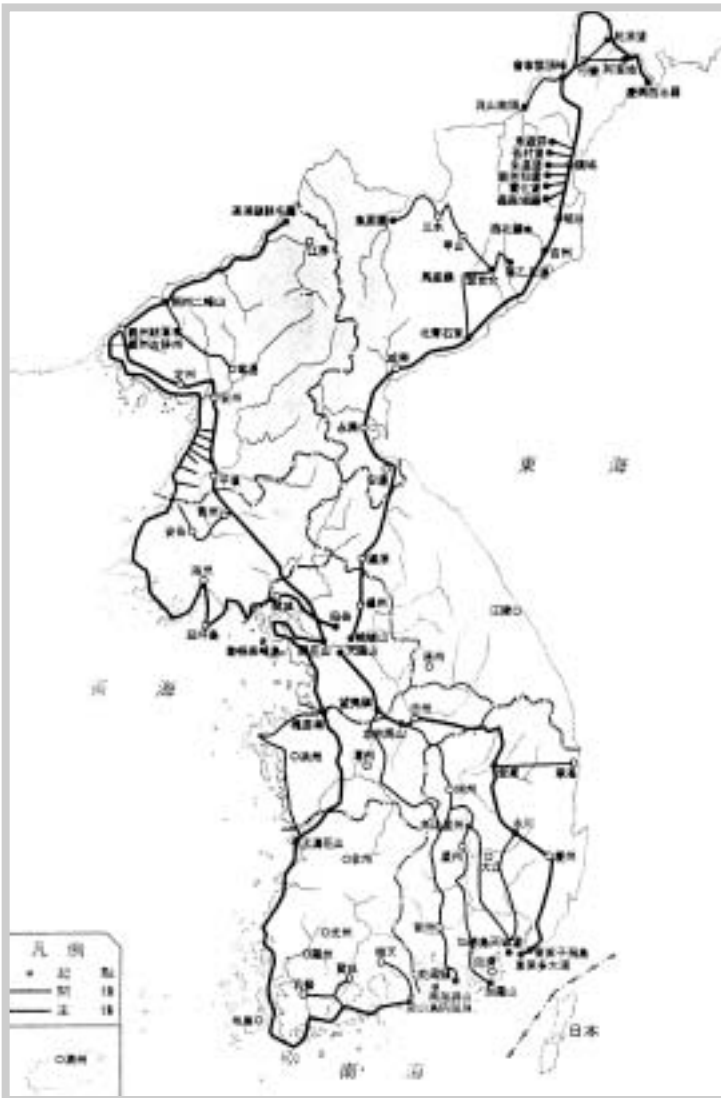


제85회 전국체전맞이  
통일기원 봉화제  
(두타산, 증평향토문화 연구회)

61) 『한국군제사』 조선전기  
편, 1968, 486~535쪽

62) 『경국대전』 권4, 병전 봉  
수조

●● 지도 6. 조선시대 봉수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권,  
111쪽에서 인용

63) 위 책 권4, 병전 봉수조

●● 표 7. 전국 봉수 직봉 경로(조선시대)

제1해(炬)	경흥서수라 → 은성모원 → 북청 → 안변철령 → 양주아차산 → 한성 → 목멱산
제2해(炬)	동래다대포진 → 영천성황당 → 순흥죽령 → 충주마산 → 음성망이산 → 광주천립산 → 한성목멱산
제3해(炬)	강계만포진 → 의주통군정 → 평양서화산 → 개성송악국사당 → 한성 모악산동봉 → 한성 목멱산
제4해(炬)	의주길정주 → 삼화우산 → 장연미라산 → 해주연평도 → 한성묘악산서봉 → 한성 목멱산
제5해(炬)	순천돌산도 → 진도영귀산 → 옥구화산 → 양성귀태곶 → 양천개화산 → 한성 목멱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  
권, 113쪽에서 인용

경우에는 평상시에 1해,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2해,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해,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4해, 아군과 적군이 교전할 때에는 5해를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해안에서는 평상시에 1해, 바다 위에 적의 배가 나타났을 때 2해, 적의 배가 해안에 접근하면 3해, 적의 배가 우리 수군과 교전하면 4해, 적이 육지에 오르면 5해를 올리게 했다.<sup>63)</sup>

또한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봉군)이 차례로 달려서 보고했다.

조선시대 봉수로는 직봉(直烽)과 간봉(間烽)으로 나누었는데, 직봉은 5개 노선으로 5개의 출발지로부터 목멱산 봉수에 이르기까지 단선으로 연결된 주된 노선이며, 간봉은 직봉에서 갈라져서 직봉노선과 별도로 진행하다 직봉체계에 합쳐지거나, 5개의 출발지 외에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5개의 직봉노선 중 한개의 직봉노선에 연결되는 노선을 말한다.

조선시대 봉수망과 직봉 경로는 다음의 <지도 6>과 <표 7>과 같다.

조선시대 봉수의 운영은 날씨와 봉군의 직무 성실성에 의하여 성과가 좌우됐는데,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6진 지역에서 오후에 올린 봉화가 해질 무

렵에 목멱산(서울남산) 앞 봉수대인 아차산 봉수대에 닿았다고 한다. 이렇듯 운영의 성과는 대단히 컸다. 그러나 날씨가 나쁘고 봉군이 지치고 타성에 젖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신호가 끊기거나 잘못 전해지기도 하는 등 봉수가 잘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중평지역에서 봉수대가 설치된 곳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기록에서 한곳도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제2직봉에 연결되는 간봉의 주위 지역이었다.

## (2) 파발제(擺撥制)

파발제(擺撥制)는 조선시대 변경의 급보나 화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통신제도였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봉수대가 그 기능과 운영면에서 날씨, 봉군의 직무자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호가 끊기거나 잘못 전해지는 등 성과가 적어 봉수제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실시한 제도이다.

파발제의 조직은 『만기요람』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직발(直撥)과 간발(間撥)이 있고, 전달수단에 따라 기발(騎撥)과 보발(步撥)로 나누어졌다. 기발은 말(馬)을 타고 전달하는 것으로 25리마다 1참(站)을 두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20리 혹은 30리에 1참(站)을 두었다. 보발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30리마다 1참을 두었다.

파발의 조직망은 서발(西撥), 북발(北撥), 남발(南撥) 등 3개 노선으로 조직되었다. 『대동지지』에 수록된 파발의 조직망을 보면 서발은 기발로써 의주(義州)에서 한성(漢城)까지 직로(直路)로 1,050리에 41참을 두었고, 그 밖의 간로(間路)에 45참을 두었다. 북발은 보발로써 경흥(慶興)에서 한성까지 직로로 2,300리에 64참을 두었으며, 그 밖의 간로에 32참을 두었다. 남발은 보발로써 동래(東萊)에서 한성까지 920리의 직로에 31참을 설치했다.

파발제는 역과 봉수제와 함께 조선시대 군사통신체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오다가 한말(韓末)에 전신·전화통신시설이 발달하면서 폐지되었다.

## (3) 우역제(郵驛制)

우리나라의 우역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나는데 신라에 관한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우역을 맡을 관청에 명하여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했다.<sup>64)</sup>”라고 하였으며, 고구려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에 “국내성은 평양으로부터 17역을 거쳐서 이른다”<sup>65)</sup>고 하여 역로(驛路)와 역의 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제의 경우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역참, 역도를 계승, 정비하여 역제를 완성하게 되는데, 역이 수행하는 직무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

6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제3, 소지마립간 9년 3월조 “始置四方郵驛命所司修理官道”

65) 『삼국사기』 권37, 잡지 제6, 지리4 고구려조 “國內城從平壤至十七驛”

다. 명령의 전달 방법에는 우역(郵驛)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걸어서 전하는 보전(步傳)을 우(郵)라 하고, 말을 타고 전하는 마전(馬傳)을 역(驛)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역은 크게 나누어 도보에 의한 전송과 역마(驛馬)를 이용한 전송의 두 종류가 있었으며,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 이외에는 도보로 전송했다.

우역제에서 역참은 역도(驛道)와 역(驛)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신시설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로서 행정구역의 역할을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 2) 근대 이후 증평의 통신

### (1) 우편

우리나라에서 우정사(郵程司)는 1882년 12월 5일에 설치됐다. 우정사의 임무는 전보, 역전(驛傳), 철도, 수로업무를 관장하였다. 그 후 신식우정제도를 실시하고자 1884년 3월 27일 우정총국(郵政總局)을 창설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한성~인천간에 우편업무가 취급됐다.

충북의 우편업무는 1887년에 충주우편취급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어 1904년에 제천·추풍령, 1905년에 청주·진천·괴산·단양, 1906년에 옥천 등 각각 우편취급소가 설립 개소됐다.

증평지역에는 1923년에 증평우편취급소가 설립 개소되었으며, 1962년에 도안우체국이 개국됐다.

오늘날 증평지역의 우편시설은 3개 우체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우체국인 증평우체국, 별정우체국인 도안우체국, 군사우체국인 82군사우체국 등이다.

### ① 증평우체국

증평우체국은 1923년 5월 16일 괴산군 증평읍 교동 915번지에 증평우편소로 개소되어 우편업무를 시작하여 1946년 7월 1일 4급 증평우편소로 승격되

고, 1949년 8월 13일 증평우체국으로 승격 개칭됐다. 1950년 6·25전쟁으로 소실되어 증평읍 교동 915번지에서 가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며, 1954년 5월 15일 증평읍 증평리 1014-11번지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

그 후 1961년 10월 22일 증평읍 교동 23번지로 청사를 개축 이전했다. 1977년 12월 3일 증평우체국 전신전화분실을, 1981년 7월 30일 우편실을 증축했다. 증평우체국은 1989년 2월 9일 현재의 위치인 증평군 증평읍 증동



증평우체국 청사

30번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했다.

중평우체국의 우편시설, 우편물 취급, 우편요금수입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8. 우편시설

(2003년 현재)

직원수 (명)	집배원 수 (명)	우 체 통 (개소)			사서함 시설수	수송 장비(대)		우표류 판매소
		계	갑	을		자동차	이륜차	
37	18	48	32	16	10	2	17	21

☞ 중평군, 『통계연보』, 2004, 188~189쪽

●● 표 9. 우편물 취급

(2003년 현재)

구 분	총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계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국내(천통)	6,022	1,203	4,819	1,108	4,593	71	179	24	47
국제(통)	8,350	2,998	5,352	2,075	4,367	768	639	155	346

☞ 중평군, 『통계연보』, 2004, 190~191쪽

●● 표 10. 우편요금 수입

(단위 : 천원)(2003년 현재)

총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402,116	31,510	211,965	1,254	107,344	24,967	82,807	5,289

☞ 중평군, 『통계연보』, 2004, 190~191쪽

## ② 도안우체국

도안우체국은 국가공업화 정책의 지원을 위한 전력, 교통, 통신 등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중점적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인 체신특별법에 의거 별정우체국의 설립인가로 1962년 5월 31일에 괴산군 도안면 화성2리 141-2에 개국했다. 도안우체국은 별정우체국으로 도안면민의 우편업무, 전화, 금융 등 체신업무의 편익을 제공했다.

1966년 12월 30일부터 전화교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87년 4월 7일 전화교환업무를 전화국으로 이관했다. 1990년 4월 20일 체신금융 온라인업무를 시작했으며, 1998년 7월 1일 우편업무 전산화를 실시했다.

도안우체국은 1992년 3월 2일 현재 위치한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 165-2번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했다.



도안우체국 청사



도안우체국의 우편시설, 우편물취급, 우편요금 수입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11. 우편시설

(2003년 현재)

직원수 (명)	집배원수 (명)	우체통 (개소)			수소장비 이륜차(대)
		계	갑	을	
6	2	11	2	9	2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88~189쪽

●● 표 12. 우편물 취급

(2003년 현재)

구 분	총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계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국내(친통)	1,595	549	1046	489	983	39	45	21	18
국제(통)	2,455	1,297	1,158	618	894	292	159	387	105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0~191쪽

●● 표 13. 우편요금 수입

(단위 : 천원) (2003년 현재)

총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108,255	7,251	58,986	109	11,749	6,577	37,520	565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0~191쪽

●● 표 14. 역대 우체국장 현황

(2003년 현재)

대수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1대	연 규 영	1962. 05. 30 ~ 1977. 06. 26	
2대	연 병 덕	1977. 06. 27 ~ 1991. 05. 14	
3대	유 병 택	1991. 05. 15 ~ 현 재	

## (2) 전화

우리나라의 전신업무는 1885년 9월 28일 한성~인천간에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1889년 4월 13일 청주지선(공주~청주)이 준공됐고, 청주분국이 1889년 4월 15일 개국됐다.

전화개설은 처음에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다가 1990년대에 전화국에서 담당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하기 전에는 증평·도안우체국에서 전신교환 업무를 수행했는데, 증평의 경우 1923년 5월 16일 증평우편소가 개설되고, 1949년 8월 13일 증평우체국으로 승격됐으며, 전화의 자석식 교환업무를 수행하

다가 1962년 도안우체국이 설치되면서 1966년 12월 30일부터 도안면의 전화 교환업무는 도안우체국에서 취급했다.

그 후 1982년 1월에 한국통신공사가 발족되면서 전화업무가 증평·도안우체국으로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 피산사업소 증평주재소로 이관됐다.

#### ① KT청주지사 증평지점(전신전화국)

1981년 3월 14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이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식 발족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피산사업소 증평주재소가 증평우체국과 도안우체국으로부터 분리됐다.

그 후 1984년 7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 피산사업소 증평분소로 되고, 1988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 피산전화국 증평분국으로 되었으며, 1992년 7월 1일 한국통신 증평전화국으로 개국했다.

1999년 1월 1일 청주전화국으로 통합되어 증평분국이 되고, 2002년 4월 1일 KT청주지사 증평지점으로 되어 증평읍을 포함하여 도안면, 사리면 일부, 청안면 일부, 초평면 일부 등 211.3km<sup>2</sup>의 면적을 관할하며, 1개읍 4개면 122행정리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KT 청주지사 증평지점

#### ●● 표 15. 증평지역 전화시설 현황

(2003년 현재)

읍·면	전 화 가 입 자(명)				착
	계	업무용	주택용	사업용	
18,325	16,498	4,758	11,340	400	

#### ●● 표 16. 증평지역 전화사용 도수 현황

(2003년 현재)

구 분	1997년	2002년	2003년	비 고
국내전화	79,985,555	68,201,583	65,141,346	
국제전화	77,292	78,672	82,573	
계	80,062,847	68,280,255	65,223,919	

2004년 4월 현재 KT청주지사 증평지점은 XDSL 시설수가 총 6,480회선으로 ADSA이 4,084, IP-XDSL이 2,396회선이며, 가입계약자수는 5,430회선으로

XDSL이 3,347회선, IP-XDSL이 2,083회선이다.

그리고 교환시설수는 총 18,633회선으로 TDX-1A가 9,901, TDX-1B가 8,732회선인데 운용수는 16,795회선으로 TDX-1A가 9,006, TDX-1B 7,789회선이다.